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일들이 속속 벌어지고 있는 이 때에 오직 주의 진리를 전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0, 24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7월 11일 (토) 제 1541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회개운동으로 진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

#### 미 언론, 연방대법 동성결혼 합헌결정 따른 교단별 입장과 향후 벌어질 쟁점들 예측

지난 주 미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정(the Obergefell et al. v. Hodges) 이후, 미국 사회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인정해 수많은 태아들이 희생되게 한 판결(Roe v. Wade)보다 더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역사적 판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마디로, 1963년 공립학교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난 후 미국 사회는 진보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고, 이제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판결로 시대 변화의 바람에 편승한 진보 진영에게 승리를 확인시켜주었기 때문이다.

먼저 복음주의 진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미국 교회 100여명 이상의 지도자들이 공동 서명한 "결혼의 복음주의적 선언"을 내놓았다. 동 선언은 "성경은 분명하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진리를 가르친다", 그리고 "복음주의적 교회들은 반드시 어떠한 문화적 흐름이나 추세와는 상관없이 결혼에 대한 성경적 증인으로 충실하게 나아간다"는 성경적인 결혼관과 교회관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서명한 지도자들: J.I. Packer, Tony Evans, Focus on the Family president Jim Daly, Alistair Begg, Bryan Chapell, D.A. Carson, David Jeremiah, David Platt, Dennis Rainey, H.B. Charles, Jr., James MacDonald, J.D. Greear, Kevin DeYoung, Mark Dever, Matt Chandler, Nancy Leigh DeMoss, Albert Mohler, Randy Alcorn, Russell Moore and many others).

퓨포럼 리서치에 따르면 이번 연방대법의 판결 이전부터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지지했던 교단들이 성명을 발표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Presbyterian Church(USA), Conservative Jewish Movement, Reform

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거룩한 영역인 교회까지 세상 법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미국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 더욱 큰 쟁점이 된다. 벌써부터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연방대법원의 판정에 일종의 '시민불복종'운동을 점화시켰다. 수정헌법 1조항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따라 동성결혼자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소송이 이어질 경우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동성애 문제는 이 시대의 마지막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진정한 회개운동으로 현재의 난관을 이겨내야 한다.

Jewish Movement, Society of Friends(Quaker), Unitarian Universalist Association of Churches, United Church of Christ(each congregation may adopt or reject the recommendations of the General Synod), Evangelical Lutheran Church, Episcopal Church(sanctions blessing of same-sex unions).

(3면으로 계속)

### 쫓기는 삶에서 해방...우선순위를 지켜라!

#### 리더십저널, IVF 찰스 험멜의 성경적 원칙에 따른 시간관리 소개

'시간 관리'만큼 우리에게 학습된 무력감으로 다가오는 영역도 드물다. 수 없이 계획도 세워 보았고, 결단도 해보았으나 결국에는 급한 일에 쫓기는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과 당근, 두 종류 아이템을 휘둘러 분주함으로 몰아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한다.

'시간 관리'는 단지 어떤 기법을 익힌다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기에 IVF 이사인 찰스 험멜(Charles E. Hummel)은 '시간'이 아닌 '자신'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자신의 태도와 습관을 컨트롤 하는 능력이 커져야 하는데, 이는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었다. 그래서 험멜은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원칙'을 거듭 강조한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일까? 아마도 "바쁘다"일 것이다. 오늘날 어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바쁘다"를 입에 달고 산다.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인다. 그런데 만약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을까?

정신없이 바쁜 일상이 계속된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신은 어떤 일에 쫓기고 있는가? 곰곰 생각해보면 중요한 일을 하기보다는 눈앞의 일을 처리하는데 급급할 때가 많을 것이다. 물려드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없다. 업무나 기타 이해관계로 위인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 이렇듯 우리의 일상은 계획에 없던 일로 분주한 경우가 참 많다.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많은 일을 해내지만, 정작 중요한 일은 땅에 묻어두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정작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구분하지 않은 채 달리는 대로 살아온 결과이다. 우리가 늘 쫓기며 하루하루를 살

아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고만고만한 일들이 몇 개씩 겹쳐 있는 시간표로 하루하루를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작 중요한 일은 내버려둔 채 여영부영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당장 급한 일만 임기응변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께서는 우리들이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도록, 시간 관리의 원칙을 제시하셨다. 예수의 주변은 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들끓었다. 하지만 그분은 눈앞에 닥친 시급한 요구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에 맞는 일에 집중하기로 선택하셨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께서 병자가 찾아왔을 때 다른 마음으로 이동하시거나 잠시 군중을 떠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다. 나사르가 병으로 죽어갈 때도 주님은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 (3면으로 계속)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Online) 기독교상담학과**  
1. 학사: 성서학(BABS), 기독교상담학(BACC)  
2. 석사: 목회학(M.Div), 신학(MAT), 기독교상담학(MACC)  
3. 박사: 목회학(D.Min)  
4. 세계 모든 곳에서 통신과 온라인으로 학위 취득 가능  
5. ATS 인가 학위로 미국 주류 기독교 대학과 학점 인정 및 편입학  
6. 연방정부 학비 지원, 선교사 장학금, 목회자 장학금, 부부 장학금  
미국 대학교 인증기관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TRACS 정회원  
500 Shatto Place,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www.wmu.edu /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교회성장, '영향력' 이 진정한 부흥!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박시경 박사  
(그레이스신학대학원)

16면  
인/터/뷰  
이용규 목사

# 2015 호산나 복음화대회

“아버지여! 이 나라와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왕상 8:28)

일시: 7월 29일(수) ~ 31일(금), 저녁 8시  
장소: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  
18 Essex Road, Paramus, NJ 07652

강사: 한기홍 목사  
유초등부강사 헬렌 김(Helen Kim) 전도사  
맨하탄 City Vine Church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NEW JERSEY  
P.O.Box 205, Palisades Park, NJ 07650 / njkoreanchurches@gmail.com / 551-257-5001





# 시론

## 내가 살고 있는 작은 세상에서의 꿈!



은호근 목사 (참사랑교회)

“휴가 180일, 5년마다 해외여행, 근무시간은 하루에 7시간, 정년 70세, 평균 연봉 6000만원, 1년 휴가 180일!” 셀러리맨들에게는 꿈의 직장이며 CEO들에게는 배움의 경영철학이 있는 이곳은 일본의 “미라이 공업”입니다. 누구나 이런 회사가 잘 돌아갈 리가 있느냐는 의문을 한번쯤은 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장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회사보다 직원의 복지에 온 힘을 쏟는 이 회사는 일본 내 동종업계에서도 매출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량기업입니다. 해마다 전 직원들의 이름이 쓰여진 제비를 모아 선공기 바람에 날려 제비를 잡습니다. “이번에는 자네가 과장이야”, “어차피 똑같아. 아무나 맡겨도 잘해. 믿고 맡기면 성과는 자연스레 나오게 돼 있어.”, 사내 게시판에는 “모든 직원들은 이유, 내용 불문하고 제안서를 내면 상금을 받는다. 횡수, 내용 절대 상관없이!”라는 공고가 항상 붙어있습니다. 직원들이 제안한 내용에는 비용 절감에 대한 내용부터 직원과 회사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략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직원들 책상마다 달려있는 스위치는 자리에 앉을 때만 불을 켤 수 있도록 하지! 복사기는 단 한 대만 놓자! 그렇다면 300명이 일하는데 직원들이 이를 불편하게 여길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절약한 돈으로 직원들에게 5년에 한번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복사 순서를 기다리고 전기를 아껴 쓰게 되지 않을까요? “인간이야. 기계가 아니라 인간. 어떤 기업은 원가를 맞추기 위해 월급을 낮추고 직원들을 많이 부러먹지. 그럼 사원들이 신나서 열심히 일할까? 태도 없는 소리지. 회사가 힘들수록 사원을 기쁘게 해야 해. 그래야 발전하는 거야. 왜? 사원들은 인간이니까. 인간은 즐거울 때 더 열심히 하니까.” 미라이 공업 창업자인 야마다 야키오의 마인드입니다. 이렇게 ‘사원이 행복해야 기업이 성장한다’는 미라이 공업에는 해마다 100대1의 치열한 경쟁률이 말해 주듯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고 싶은 기업으로 꼽힙니다(이상은 제 이메일로 좋은 이야기들이 오는데 정확할 출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중 하나입니다. 나누고 싶어서 옮깁니다).

만약 제가 직장인이었다면, 아마도 모든 직장인들이 “이런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부럽다”는 마음을 가질겁니다. 이 회사의 근간은 무엇일까요? “믿음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사주와 사원, 사원과 사원이 서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혁신적인 개혁과 효율성의 극대화가 이루어져 모두가 윈윈하는 게 아닐까요? 아마도 이들은 그 경험을 가정으로, 친구와 이웃들에게로, 세상으로 가져가 그대로 적용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작은 행진은 “함께 나누며 신뢰하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작은 시냇물들이 되어 강으로 합쳐지고 바다로 연결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즐겨 불렀던 “작은 세상”이라는 노랫말이 생각납니다. “함께 나누는 기쁨과 슬픔, 함께 느끼는 희망과 공포,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알았네, 작고 작은 이 세상, 산이 높고 협해도, 바다 넓고 깊어도, 우리 사는 이 세상 아주 작고 작은 곳/협한 길 가는 두려운 마음, 우리 걸으면 기쁨이 넘쳐,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알았네, 작고 작은 이 세상, 산이 높고 협해도, 바다 넓고 깊어도, 우리 사는 이 세상 아주 작고 작은 곳”.

오늘의 교회와 성도를 생각해봅니다. 100대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미라이 공업에 들어가고 싶듯이 예배드리러 가고 싶어 환장하는 교회! 교인총회가 되면 선교부장, 교육부장, 관리부장, 재무부장, 당회원, 기획위원 등등의 쪽지를 날려, 하고 싶은 사람들이 날라 다니는 쪽지 붙들어 봉사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성서적 교회를 위한 제안서들이 교회 곳곳에 붙어 있는 교회! 이것을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창조적 도전이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자기개발과 혁신이 이루어지는 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탄생과 품고 신명전을 펼치며 불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밀어주는 정직한 교회! 주일학교 교실이 부족해도, 주차장이 없어 길가에서 주차 전쟁을 해도, 남의 교회를 빌려 쓰고 있어도, 교회 안에서 김치냄새 풍기면 안돼 허구헌날 베이글 먹어도, 전혀 불편하거나 장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우리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행복하고,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갖는 성도들! 오늘날 사회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근심하며 지탄하는 세태 속에서, 이런 행복한 교회와 성도들을 꿈꿔 봅니다.

이런 교회와 그 교회 때문에 즐거워 미쳐 신명난 성도들이 각각 가정으로 돌아가 친지와 친구들과 그리고 이웃과 세상에 들어가 그 경험을 함께 나누는 “작고 작은 이 세상”을 노래한번 중얼중얼 불러보며 한여름 밤을 보냅니다. 객기일까? 아름다운 소망일까? 객기라고 치부해버려도 좋지만 적어도 이런 꿈을 잃지 않고 살고 싶은 자기 몸부림이 각자의 인생과 신앙의 중심에 살아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꿈 꿔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작은 세상에서 성서적 교회와 성서적 신앙의 회복을!

# 교회성장, '영향력' 이 진정한 부흥!

### thomrainer.com, 탐 라이너 목사가 말하는 교인 수 350명 돌파 못하는 이유 보도

모든 목회자에게 교회성장(혹은 목회성공?)이란 피할 수 없는 강력한 목표다. 교회성장(혹은 목회성공)을 희망하지 않는 목회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목표 성취와 인생 성공에 대한 그런 관점이 아니어도 그렇다. 거룩한 소명으로서의 목회는 분명 세상의 기업 성장이나 인생의 성공과는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목회자 또한 교회성장(혹은 목회성공)을 희망하며 성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매우 중요한 질문이 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교회성장(혹은 목회성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지한 물음과 반성이 있어야만, 교회성장을 교인 숫자와 예배당 크기만으로 결정짓는 일반적인 통념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만큼 대형교회 성장 신드롬은 물론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부정적인 폐단들도 있어왔기에 항상 목회자는 성경을 통해 교회 성장을 되새겨야 한다.

한편 교인 숫자와 교회 크기에서 이제는 교회의 성장은 교인수가 아닌, 교인들의 영향력과 비례한다는 논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교인들이 먼저 바로 사는 모습을 통해 그 영향력을 넓혀나갈 때 비로소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아니라 '영향력'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교회성장 지혜인 셈이다.

'라이프리서치'의 책임자인 탐 라이너 목사는 교인 숫자와 동시에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 사이즈를 350명 정도라고 단정 짓는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미국 교회들 중 90%가 350명 미만의 평균 주일예배 참석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라이너 목사는 왜 미국 교회들 중 대부분이 350명이라는 마지노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One Key Reason Most Churches Do Not Exceed 350 in Average Attendance).

미국교회들 중 90%는 주일예배에 350명 미만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린다. 이 수치는 지난 몇 년 동안 바뀌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교회공동체들이 들어선 지역 사회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복음을 가지고 전도할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결론이다.

다시 왜 미국 교회들이 주일예배에 350명 미만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은 해석들이 있다. 딱 한마디로 정의나 분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 교회들이 주일 평균 예배 참석률이 350명 미만에 그치는 것은 바로 해당교회에 '충분한 리더십'과 '시스템이나 구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교회 성장학이나 전문가들은 교인 숫자가 200명에 이르러 되면 장애들이 발생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the 200 barrier). 주변 상황이나 교회 내 문제들로 인해 장애나 장애 현상은 150명에서 350명 사이에서 발생할 수

## 대형교회는 더 대형화, 소형교회는 더 소형화...중형교회 사라져

### 미국 교회 주일예배 참석율 90%가 350명 미만 변화단계 부적응 혹은 변화수용 못해 성장 지연

성장을 이끌 수 있다.

미국 교회는 현재 중형교회는 사라지고, 대형교회는 점점 더 대형화되고, 소형교회는 점점 더 소형화되는 양극단으로 치닫하고 있다. 소형교회 교인들이 점점 대형교회로 수평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교회 주일 예배 참석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차원에서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다:

1. "항상 큰 것이 더 나은 것은 아니다" 주일예배 참석률이 많은 교회가 참석률이 작은 교회보다 더 신실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2. 지역적으로 인구가 드문 지역들에 교회들이 있다. 미 전 지역에는 대도시나 중소도시를 제외하고 반경 5마일 안에 350명이 살지 않는 지역들이 많이 있다(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는 반드시 있다).
3. 목회자의 리더십이 온전하게 성경과 신학적 바탕에서 있어야 한다. 교회 성장을 숫자 아니면 영향력으로 판단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담임목회자의 리더십이 우선되어야 한다. 건강한 청지기 건강한 결산을 만들어 주인을 기쁘게 하듯이, 성경으로 기초를 잡고, 신학적으로 구비된 목회자가 교회

이러한 통계에서 눈여겨 볼 것은 바로 미국교회 상위 10%의 교회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나머지 90%는 점점 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교회 주일 예배 참석률 양극화 현상,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

다. 그러나 충분한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가 온전한 시스템으로 사역한다면 그 장애들은 사라지게 된다.

성경에서 모세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구조와 앞에서 원하지 않게 희생양이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The Korean Christian Press ■ 편집국장: 유원정

<p><b>L.A. Office</b>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p>	<p><b>N.Y. Office</b>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 표) · E-mail : ny@chpress.net</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2015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USED) OPE ID: O3528300,  
www.ope.ed.gov/accredit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 BA in Music 음악학
- BA in Theology 신학, 기독교교육
-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Master Degree Programs**

-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 MA in Music 음악학석사
-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



# 교회, 급변시대 속 희망의 등대 역할 기대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연방대법의 판결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금식과 함께 풀뿌리 서명운동까지 벌인 교단들은 이번 판정으로 인해 미국 사회와 인류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왔다고 통탄하고 있다: American Baptist Churches, Anglican Churches of North America, Assemblies of God,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slam(homosexuality is a crime in many Islamic countries), Lutheran Church - Missouri Synod, Orthodox Jewish Movement, Roman Catholic Church, Southern Baptist Convention, Seventh-Day Adventists, United Methodist Church.

## 1. "종교적 자유" 논란 심화

연방대법원 대법관 5명은, 동성결혼 합법 판결문에서 "결혼은 중요한 사회제도지만 법과 사회의 발전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후 "동성결혼에 대한 반감이 많이 사라진 사회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 동성애자들의 성적 취향을 소수자들의 권리이고, 이를 주 정부차원에서 결혼수호법령(DOMA)을 근거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적 해석을 했다.

그러나 수정헌법 1조에서 나타난 "종교의 자유"와 소위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논리가 마주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종교의 자유 v. 평등

권"이 갈등을 벌이게 된다.

지난 2004년부터 매사추세츠 주의 공립학교 교육 규정은 성적 지향성에 따른 차별적 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던 아버지가 학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사례도 있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캐나다 토크토에서는 공립학교 7학년 성교육 시간에 남녀 간에 이뤄지는 성행위 외에 동성 간에 이뤄지는 성교도 가르치고 있다.

동성애자들이 노리는 전략은 바로 공교육을 통해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자의 성적 취향을 "날 때부터" 부여되는 본성이라는 것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남성성과 여성상이라는 이미지 대신 게이나 레즈비언도 정상인이라

안"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교회들이 동성결혼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 면제 혜택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다.

결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의 최대 피해자는 교회, 즉 보수 복음주의적 크리스천들이다. 타임지는 최근 미국사회가 완전히 기독교-후기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번 연방대법의 판결이라며, 이제 정통 크리스천들은 마치 망명자처럼 미국에서 살아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기사를 내놓을 정도다 (Orthodox Christians Must Now Learn To Live as Exiles in Our Own Country).

결론으로, 이번 합헌 판결로 인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그리고 성전환자(LGBT)들의 자유를 외치는 물결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에서부터 애플의 최고 경영자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까지도, "LGBT들이 성적 취향 때문에 차별이나 불평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일종의 만병통치 주문이 최고대법원에 의해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주의자들의 거침없어 보이는(?) 진격은, 오히려 미국 사회를 더욱 더 진보와 보수라는 양극단으로 분리시키고 있다.

크리스천의 '양심'이나 '신앙'에 대한 이러한 도전은 너무 심각하기에, 미국 사회의 양극화 국면이 개선되기보다는 더욱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이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아직은 낙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 역사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지혜 있는 사람들은 바로고 다원화된 민주주의라는 체계 안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다(살렘에서의 '마녀 재판' 시기로부터 1950년대 냉전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맥카시즘까지).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공동체가 급변하는 거친 풍랑과 해일들을 버텨내면서 오히려 희망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굳건하게 지속되고 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슴은 뜨겁지만, 냉철한 이성'으로 열심히 일하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양심과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법들을 고지식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 운동"이 이 땅에 일어나야 한다. 회개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가가야만,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의 도전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Here We Stand: An Evangelical Declaration on Marriage

## 소망 칼럼

###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은 찾아온 기회를 잘 잡고 실패하는 사람은 머물러하다가 찾아온 기회도 놓치고 만다. 애플리케이션(여름휴양지)에서 간단한 간판을 내걸어 돈을 번 사람이 있다. 아이들과 청년들이 모두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게는 "맨발로는 들어오지 마시오(No Admission to bare feet. 혹은 No shoes, No shirt, No service)"라고 써 붙였는데 한 가게만이 대문짝만하게 "맨발 대환영(Welcome bare feet)"이라

고 써 붙였던 것이다. 이 집은 샌들(sandal)을 파는 가게였다. 이 가게 주인은 맨발을 사랑했다. 왜냐하면 그 더러운 발 하나 하나가 문제의 출처가 아니라 그에게는 기회의 근원이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배경을 말씀하고 있다.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자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바울을 고발하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음모였고, 베스도는 그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바울은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으며(행25:10), 베스도는 그의 죄목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받을 것을 권하게 되고, 바울은 오히려 로마에 가서 로마의 최고 통치자인 가이사(Caesar)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된 것이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렸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바울은 직접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더욱 널리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로마 전도를 위한 주님의 계획과 섭리는 계속 성취되어갔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여러 구실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되지 못하도록 위기를 조성하고 복음 전파자들과 그를 돕는 성도들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송사하려 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사탄의 방해와 적대해 노출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비방을 받을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된 성도들은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마28:16-20).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자기들끼리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느냐?" 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는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그리스도인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고한 판단과 정죄 앞에 선다 해도 자신의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당당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잘 믿는 성도들이 실패하는 인생인 것 같아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이 진실하고 착하게 살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눈으로 보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롬8:28) 성도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한다.

바울은 자기에게 닥쳐온 억울한 모함과 생명의 위협을 오히려 세 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바꾸어 놓았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 위기와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오히려 주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위기를 기회로,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불경기는 호경기로, 불통(不通)은 협통(亨通)으로, 고난은 평안으로, 병든 몸은 건강한 몸으로, 불평은 감사로, 불안은 만족으로, 실패는 성공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불행은 행복으로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 종교자유 vs 평등권...진보-보수 양극화 극대화 공교육, 세금문제 등 가시적 파급 효과 즉각적

미국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조지 O. 우드 목사는 연방대법의 판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법원은 법적인 차원에서 법리를 내릴 수 있지만, 도덕률을 정할 수 없다"며, 하나님의성회는 성경에 옳고하게 규정된 한 남자와 한 여자간의 결혼을 지켜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있다.



동성애자를 성직에까지 허용하는 성공회에서 나와 성경적인 성공회(the Anglican Church of North America, ACNA)의 리더들 역시, "연방대법이 동성결혼을 인정함으로써, 인간의 삶이 송두리째 파괴당할 위험에 처했다"며, "이번 판결을 반복시킬 수 있도록 다른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기도로서 끝까지 가겠다"고 결단하고 있다.

연합감리교회 린치 데이비스 감독은 캔터키 총회에서, "연합감리교회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간의 평생 언약인 결혼이라는 성경적 이해를 지켜나가는 데 충실하기를 간구한다"며, 연합감리교회 내부에서 진통 중인 동성애와 동성결혼 문제에서, 복음주의적 노선을 지켜나갈 것을 염원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장로교회(PCUSA)는 이번 결정에 반색하고 있다. "미국 장로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LGB들의 시민 권리들을 위해 힘써왔고, 이번 판결은 바로 이를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 앞으로 밀어닥치게 될 동성결혼 합헌이 불러일으키는 쟁점들을 살펴보자.

권"이 갈등을 벌이게 된다.

실례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는 이미 투표로 선임된 행정관이나 다른 공직자들이 동성배우자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신 법안을 가결시켰다. 바로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텍사스 주에서는 법원 서기들이 종교적 이유로 동성애자들의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주법무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알라바마 주는 주대법원장의 명령에 따라 동성결혼 증명서를 거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난 2세기 동안 알라바마 주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간의 결혼에만 증명서를 발급했기 때문이고, 아무리 연방 헌법일지라도 이러한 의무를 변경할 수 없다.

## 2. 동성결혼이 수정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범주에 들면 '당장'

는 것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다.

당장 크리스천 가정에서도 동성결혼을 합헌 시킨 대법원의 결정과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의문을 갖는 자녀들이 물어볼 수 있다. 과연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 3. 종교와 교회에게 주어진 세금 면제 혜택 박탈 위기

타임지는 연방대법의 판결이 떨어지기까지 이제 연방이나 주정부 부가 교회나 비영리기관에 주어진 세금 면제 혜택을 박탈해야 한다는 기사를 내놓았다(Now's the Time To End Tax Exemptions for Religious Institutions).

연방대법의 판결이 이미 합헌 쪽으로 기운다는 예측이 있었기에 지난달 12일에는 유타 주 상원의원 마이크 리는 "수정헌법 1조 수호법

(1면에서 계속)

이와 같은 예수의 삶은, 우리가 주어진 일상 속에서 소망을 충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귀한 통찰과 도전을 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급한 일에 쫓기지 않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가? 미국 IVF 이사와 배링턴 칼리지 총장을 역임한 찰스 험멜은 아래의 4단계를 제안한다:

1단계: 우선순위를 정하라  
'최우선 순위' 항목은 말 그대로 '단 한 가지'여야 한다. 바쁘게 살다 보면 최우선 순위가 어느새 3-4개로 늘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먼저 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보일 것이다.

2단계: 시간 사용 현황을 조사하라

자신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단지 몇 분 동안' 생각해도 되는 일에 몇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는 하루 동안 인터넷 서핑, 동료들과의 수다, 모바일 메신저 대화 등 사소한 일에 시간을 얼마나 소비하는지 점검해본다.

3단계: 시간 예산을 세우라  
사람은 계획을 세울 때,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최소한으로 계산하려는 경향이 있다. 집에서 회사까지 가는데 최소 10분이 걸린다면, 계획표에 '출근시간 10분'이라고 적는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서 실제로는 15분이나 20

분이 걸리는 날도 종종 있다. 이처럼 예측이 불가능한 일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여유를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일정 관리가 수월해진다.

4단계: 계획을 실행하라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는 없다. 어떤 일인데 점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씩 진행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같다.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우리의 시간을 대용할 것이다. 잠시 동안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충실한 삶을 계획하시기 바란다.

## 교회성장, '영향력' 이 진정한 부흥!

(2면에서 계속)

모세는 마치 서부극에 나오는 외로운 주인공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 광야로 나아갔다. 그러나 만약 모세가 계속해서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면 갑자기 너무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할 수도 없었고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리더십마저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사위의 리더십의 결함을 보고 다음과 같이 충고해준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출18:17-18).

따라서 모세는 장인의 충고와 지혜를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의 리더

로 그리고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가진 리더가 됐던 것이다.

주일 예배 평균 참석률에 따라 5가지 단계로 구조화할 수 있다:

- 100명 미만: 가족과 친구들
  - 100 - 250명: 기본
  - 251 - 350명: 도전
  - 351 - 750명: 복잡/합
  - 750명 이상: 극도의 복잡/합
-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러한 변화 단계에 미처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교회성장이 지연돼버린다.

회비무료, 점심제공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세미나

1. 일시: 2015년 7월 14일(화) 오전 10:00~ 오후 4:00  
장소: 조지아 서라벌 레스토랑 (770)497-1155  
3040 Steve Reynolds Blvd, Duluth GA 30096

2. 일시: 2015년 8월 4일(화) 오후 2:30~ 오후 8:00  
장소: 달라스 수라레스토랑 (972)243-5656  
2240 Royal Ln. #106 Dallas, TX 75229

3. 일시: 2015년 8월 6일(목) 오전 11:00~ 오후 5:00  
장소: 휴스턴 서울가든 레스토랑 (713)935-9696  
9446 Long Point Rd. Huston, TX 77055



강사: 라우체 목사 (뉴욕제자들교회)

구역, 신앙과 애인서인 대니엘서 계시록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수있는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세미나



## 도서주론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론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P.O.Box 610178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 목양칼럼

##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 사도바울이 순교당한 장소, 오스티아 (딤후4:19-13을 묵상하며-)

로마를 둘러싸고 있는 아우렐리아 성을 지나 에우르(Eur) 방향으로 가면 바울의 순교 당한 장소에 이르게 되는데 현재의 지명은 Via di Acque salve입니다. 그곳은 로마의 항구가 있는 오스티아(Ostia)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 안을 신성시 하였기에 사형은 항상 성 밖에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곳은 현재 세 분수(Tre fontana) 수도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울의 목을 쳤을 때 떨어진 목이 세 번을 튀었고 그 튀어 오른 자리마다 샘이 터졌기에 세 개의 분수라는 의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산 사람의 목을 잘랐으니 그럴 만도 하겠다 싶습니다.

그 수도원을 들어서면 입구 양편으로 교회가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것은 베르나르도 클레르보의 수도원이고 오른 쪽에는 14개의 계단이 높달하게 설계된 천국의 계단 성당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베르나르도 클레르보(Bernardo of Clairvaux 1091-1153, 찬송 85, 145, 262 작사)가 오른 편에 있는 교회의 지하실(바울의 갇혀 있던 곳)에서 기도하다가 수많은 영혼들이 계단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는 형상을 보았다고 하여 이런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클레르보는 12세기의 영적 거장으로 개혁자들도 그를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계단 성당의 지하에는 디오클레티아누스(Diocletianus 285-312) 황제 때 자신의 목욕탕을 건축하는 일에 동원한 후 죽인 1만



203명의 크리스천 군인들을 기념하는 석판을 붙여놓았습니다. 그 공간을 자로 재어 보았더니 가로 6m, 세로 5m이고 한편은 폭이 2m 되게 칸막이를 해놓고 그 부분을 두 개로 나누어 작은 창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이 공간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순교 당하기 직전 머물렀던 장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좁은 공간에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가 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오른 편, 중앙에 보이는 작은 교회당이 서있는 자리가 바로 사도바울이 순교당한

현장입니다. 교회당 입구 가까이 약 5-6m 정도를 옛날 도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위를 사도바울이 순교의제물이 되기 위해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따라 교회당을 들어서면 오른쪽에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이 있고 왼편에는 바울을 돌기둥에 목을 얹고 칼로 내려치는 장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왼편에 쇠창살을 쳐놓고 그 안에 돌기둥이 세워져있습니다. 그 돌기둥은 한쪽이 마모가 된 돌기둥입니다. 즉 수많은 기독교도들을 죽일 때 목을 돌기둥에 얹게 하고 장검이나 도끼로 내리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둥에서 목이 잘렸던지 돌기둥의 한편이 깎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 돌기둥에서 목이 잘렸습니.

다시 그의 죽음을 슬퍼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 까 싶습니다. 바울은 62년경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왔다가 2년 동안 구금을 당했습니다. 그 때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소당한 문제가 사소한 종교적인

문제를 알고 구금에서 방면되었습니다. 바울은 방면되자 성도들을 돌리보기 위해 소아시아로 갔습니다. 그러던 중 AD64년 7월19일에 로마에 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강한 동풍까지 불었기에 불길은 견줄 수 없이 타올라 로마의 14개 구역 중에서 10구역이 전소되는 굉장한 화재였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화재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가장 더울 때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무더울 때 화재가 일어났고 거기에 동풍까지 강하게 불었으니 그 여파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네로는 로마가 화재가 일어날 때 로마에서 100키로 떨

어진 고향 안지움(Anzium)의 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화재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화재는 늘상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보통 5층까지 집을 건축했는데 층들을 나무로 실제 하였기에 항상 화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멋진 데 덮친다는 말처럼 그 와중에 골족 사령관 갈바(Galba)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급히 게르만 지역을 담당하던 루푸스(Rufus)로 하여금 진압하도록 했습니다.

네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반란은 오히려 아프리카로 번졌습니다.

그 당시 네로는 자신의 거대한 궁전 도무스아우레아(Domus aurea)를 현재 콜로세움 주변에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궁전을 건축하는 데에는 넓은 땅을 필요 했습니다.

그러나 인구 밀도가 조밀한 지역이었기에 넓은 땅을 마련하는 일은 만만치 않은 재정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화재로 인해 불타버린 집터 160에이커(195,840평)를 싸게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불타버린 집터에 새롭게 건축할 여력이 없었기에 싼 값에 집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네로는 예기치 못한 큰 행운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런 행운의 여신의 미소에 네로는 얼마나 좋아했을 까요. 그러나 지나친 행운은 나쁜 소문을 양산하는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네로는 간파했습니다. 토지를 확보하려고 네로가 일부러 방화를 저질렀다는 유언비어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언비어가 점점 농민이처

럼 확대되어 민심이 흉흉하게 돌아가자 네로는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희생 제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이런 일은 정치가들이 흔히 취하는 일입니다.



당시 로마에 새롭게 부상하는 종교가 있었는데 그리스도라는 종파였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들에 관하여 크리스투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신전 제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콜로세움의 잔인한 경기를 싫어했고, 자신들끼리 형제자매로 연결되었기에 미운털이 박힌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방화의 책임을 뒤집어씌우기로 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바울은 당시 기독교의 지도자였기에 1순위로 소아시아에서 체포되어왔습니다. 갑자기 체포된 바울은 입은 옷 그대로 로마로 압송 당해야 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비행기를 타도 서너 시간 쫓겨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2천년 전 소아시아에서 로마까지 오려면 빨리 온다 해도 한 달 이상 걸려야 했습니다. 그 먼 길을 오다 보니 이미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의 감옥은 우기 철이 되어 을씨년스럽고 싸늘함이 옷깃을 여미게 했습니다. 특히 로마의 감옥은 지하에 있고 돌로 축조되었기 때문에 우기 철에는

냉기가 뼈 속까지 시려옵니다. 고로 젊은 사람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여름옷을 입은 늙은 바울은 견디기 심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못한 바울은 예베소에서 묵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겹옷을 가지고 오라고 왼편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드로아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트로이 전쟁의 현장입니다.

디모데가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예베소에서 로마까지는 너무 먼 길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겹옷을 찾아서 로마로 가져오라고 당부하는 바울의 심정은 어떠한가요? 특히 겹옷은 값나가는 비싼 옷이 아닙니다. 값 비싼 미크코트나 질감 좋은 가죽으로 만든 무스탕 같은 옷이 아닙니다. 단순히 담요 같은 것에 구멍을 뚫어 넣어쓰는 투카로 로마의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겨울옷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있는 바울에게는 그런 옷조차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한다면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누구 한 사람 방한복을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올 때는 약50Km나 떨어진 삼판까지 마중을 나와 환영했던 로마교인들이었습니다. 삼판은 현재 로마의 남쪽 치스테리나 디 라티나(Cisterina di Latina)라는 지역으로 로마에서 보통 이를 정도 걸어야야 당도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당시의 로마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쟁쟁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다구는 로마의 황족이요, 아리스도볼로의 권속이란, 헤롯의 손자 아그립바 1세의 형제 관계에 있던 아리스도볼로가 죽자 글라디오 황제의 집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16면으로 계속)

# 푸 / 른 / 초 / 장

## 나성균 목사 (살롯 장로교회)



두세주 전 우리는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보고서 충격을 금치 못하였다. 마지막 보루라고 여겨져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였건만 미국마저 합법화 판결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 없었으니 이런 때일수록 울 것이 왔구나 하는 각오와 함께 우리의 가치를 영원세계에에만 두는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하겠다.

본문처럼 세계 역사를 한눈에 바라보게 하는 말씀도 드물 것이다. 그리고 변화무쌍한 세상적 가치에 우리의 가치관을 두고 살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 참고구절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 세상적 가치(31-33)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버린 꿈을 기억하게 하고 그 해석을 보이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금은 동철진흙으로 이루어진 우상(어마어마한 사람의 상)의 모습은 크기와 광채가 특이하고 심히 두려운 모습이었다. 이것은 머리 두 팔과 가슴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 그리고 발과 발가락으로 이어지는 전 인류를 지배하였던 강대국들의 부침을 설명하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다. 바벨론과 메데 파사 헬라(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로마의 후예로 생각하며 그 옛날의 로마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세력(유럽국가들)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세상을 지배하는 강한 세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강하게 압박을 가하며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로서 그 환경에 적응하며 살 수밖에 없게 만든다. 지금도 강대국 중심으로 세계는 편성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지금 보이는 현실에서 국가적 처신을 잘하여 지혜롭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주위를 살피고 눈치를 보며 적당히 타협하고 줄서기를 잘하며 강대국의 확실한 보호를 받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절대적인 현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국가마다 국민마다 자유주의를 구가하며 인권(주권)과 자유와 평화와 평등을 구가하는 세상에서도 서로의 눈치를 보며 강대국 중심의 줄서기를 해야 한다면 그 옛날 바벨론의 절대 세력의 지배를 받을 때, 하물며 그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왔기 때문에 생사여탈권을 한 손에

다한 말씀이다. 이 모든 나라들을 부침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며, 망하고 없어진 것은 이스라엘 나라이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여전히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여전히 역사의 바퀴를 한 손에 거머쥐고 돌리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수 많은 기적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체험하고 보여주게 하시었다.

채소를 먹으며 살아도 누구보다 건강하게 하신 것이나, 세상의 학박

바퀴를 한 손에 거머쥐시고 운영하심을 온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그분과 함께 날마다 승리를 체험하고 날마다 동행하며 그분의 인재를 느끼며 증거하면서 살게 하시는 것이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라고 굳게 믿는 바이다.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믿음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도전하고, 아무리 우리를 못살게 핍박하고, 아무리 어렵게 만들어 절망시킨다 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감당할 시험만 주시며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심을 믿고 오늘도 확신과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의 길을 주와 같이 걸어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언제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을 벗어나서 무슨 일이 되어진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정확하신 섭리 하에서 허락하시는 것이 외의 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앞

당의 겨갈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어지고 오직 그 둘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은 물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다. 제 아무리 강한 나라들이 절대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고, 그때는 그 나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겠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삶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가치를 위하여 영원 세계를 위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살아야 하겠다.

환경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탓으로,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지 않을 수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의 눈을 위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곳에서 날마다 우리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성령님으로 늘

내왔을 때 그의 결단과 수고로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갑자기 격리수용된 강동병원에 중환자실 신장투석 환자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간호사 약 5분의1밖에 되지 않자 서울 17개 종합병원에 전문 간호사 응급지원을 요청하였는데도 40명 요청 중 24명밖에 오지 않았고 고대 안암병원에선 김 간호사 한 명만 자원봉사하게 되었다. 맘이 비오듯함이 사우나에서 100미터 달리기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40분마다 한 번씩 마스크를 갈아내야 하는데 갈아낼 때 쯤 이미 다 젖어 앞이 보이지 않고 어지러워 토할 것 같은 상황을 왜 홀로 자원하였는가? 아들을 낳고 이틀간이나 혼수상태에 있던 자기를 깨워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라 믿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이기적이지 않고 희생적 모범적이요 이 시대에 참 삶을 보여 주는가? 왜 무엇이 이 간호사로 하여금 이렇게 달리지 않게 만들었는가? 바로 영원한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만들었다. 세상은 다이기적이 되고 박하고 무서운 경쟁만 있는 것 같아도,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밝고 명랑하고 살맛나고 신나는 것이다. 그가 24시간 환자와 같이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전도 기회가 없습니다. 기도해주세요 하더니 수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쾌거를 이루었다.

오직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 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 오히려 타락과 멸망의 급행열차를 타고 달리는 우리가 찬양하고 있다. 이미 인터넷과 또 TV방송 인터뷰까지 나왔으니 이제 유명 인사가 되고 말았으나 그가 처음 소식을 전하고 기도요청을 보

# 올 것이 왔구나

## (다니엘 2: 31-35)

주고 있는 그 대왕의 앞에서 그 명령을 거절하며 그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고 담대히 말하며 살아가기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왜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우상과 그 해석을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는가? 한 마디로 말하여 다니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고 초강대국들이라 하여도 70년, 200년, 270년, 540년을 넘기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으니 그것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지금 의지하고 살 존재는 강대국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여전히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이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이 우상을 보여주셨

사가 전혀 업무도 내지 못하는 잃어버린 꿈을 말하고 해석하게 하시는 것이나,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하여 던져버린 풀무불 속에서도 자유롭게 거닐게 하시는 것이나, 사자굴에 떨어져도 살갗 하나 손뭇대게 하시는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를 한 손에 쥐고 운행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이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다니엘서 강해를 교회에서 시작한 것이 시기적절한 것이었다고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렇다! 오늘날도 너무도 똑같다. 온 세상이 불원장래에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그 일을 부정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가하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을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결국은 살 수 없게 만들어 직실시켜 죽이려 한다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의 수레

으로도 영원히 일어날 수 없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그 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만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인생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분이 순교케 하시던 순교하는 것이요, 감옥에 보내시면 가는 것이요, 그러디나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인 것을 더욱더욱 체험하고 간증하는 위대한 삶이 되어야 하겠다. 이것이 이 시대에도 그 무서운 불시함을 넘겨주고 같이 하나님 살아 계심을 간증하며 그분과 함께 신나게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다.

### 영원한 가치(34-35)

이 큰 우상이 견고하게 서있어 보이는 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날아와 발을 치자 거기서 땅하게 하고 결국은 살 수 없게 만들어 형편없이 무너져 여름 타작마

권면하시고 기다리시며 사모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면 그것이 곧 영원한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 투자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며 지상에서도 북받듯 영향력을 끼치고, 더 나아가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무리들을 선도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총격과 감동을 주도록 되어있다. 필자가 잘 아는 김진연 간호사(성북중앙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자매집사)는 지금 메르스로 고생하는 경희대 강동병원에 자원 근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큰 감사와 기적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있다. 이미 인터넷과 또 TV방송 인터뷰까지 나왔으니 이제 유명 인사가 되고 말았으나 그가 처음 소식을 전하고 기도요청을 보



필자가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울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에서 격양된 표정과 불쾌한 감정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들으면 이것이 잘못된 언어문화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언어를 무분별하게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대중매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영화와 드라마에서 이러한 언어 표현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영어에 익숙한 대중적인 환경이 되면서 동일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언어 표현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갖추어야 할까요?

격하게 금하시는 셋째 계명을 범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 지상에 표현하지 않아야 할 상스러운 표현까지 포함하여 몇 가지 경건치 못한 표현들을 나열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1. 경건하지 못한 표현들

1)실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오 마이 갓(Oh! my God or god)' 혹은 지저스 크라이스트(Jesus Chris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매우 강한 욕설로 사람들은 '갓뎀(Goddamn. 제기탈! 빌어먹을! 천벌을 받을!)'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사람과 물건에 대해서 경멸의 대상으로 저주하며, 슬모없는 것이라고 헐뜯을 때 사

를 사용함으로써 저주하는 것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거리로 사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개인적인 권위를 위해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입니다.

4)신성모독적 표현: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런 표현은 신성모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신성모독(헬라어, '블라스페미아')의 의미는 로마서 2장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뚱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신성모독(히브리어 '나카브')이란 하나님의 속성이나 고유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혹은 사물에 속한 것으로 돌리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집트인

는 표현은 아니지만, 한 세대 전에 영어권에서 자주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 어원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을 피하려고 신적인 이름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단어가 다 하나님(gosh, golly)이나 예수님(gee)이란 단어를 완곡어법으로 변경시켜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완곡어법(euphemism)은 거칠거나 공격적으로 간주되는 것들을 위한 부드러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성모독의 표현이 필가봐 나온 매우 온건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부문화에서 이런 것들은 저속한 욕설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거리낌 없이 사용되는 위의 세 가지 단어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일반적으로 무심코 쓰는 저속어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욕을 하거나 무익하게 사용하는 표현들은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위상을 가진 문화에서는 타부(taboo)시하는 것들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점점 저항적인 하위문화가 강력한 어조를 띠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중매체(드라마, 영화, 인터넷)에서 점점 자극적이고 강한 소재를 찾아 가는 경향이 있는 하위문화(Subculture) 계열에서는 21세기 들어와서 마치 하나의 유행처럼 신성모독에 관련된 컨텐츠(내용)와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위문화(Subculture)란 한 사회에서 정통적인 위상을 지닌 문화에 대해 그 사회의 일부 집단에 한정하여 일정한 위상을 지닌 문화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대중문화, 도시문화, 청소년 문화 등이 있는데 이 문화는 지배적인 문화나 체제를 부정하고 적대시하는 하위문화로 반문화(대항문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 문화를 따라서 잘못된 언어 표현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리스도인들마저 일반적으로 무심코 하는 말들 속에 하나님께서 엄

용하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저주와 경멸과 욕설 등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은 이런 표현을 대체해서 '오 마이 굿니스(Oh! my goodness)'라고 사용합니다.

2)합당한 경우: '오 마이 갓'과 같은 표현이 상황에 합당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이라면, 이런 말들은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과 단어가 얼마나 거룩한 용어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 그런 경우에 사용한다면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이 표현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표현으로 쓰지 않거나 경건한 의도로 사용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쓰는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3)일반적 의미: 이런 표현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 놀라며 분노하거나, 또는 사람에게 대해 분노하며 저주하거나 맹세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분노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과 이스라엘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히브리어 '가다프')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를 돌려 쳐 죽일 것을 명하셨습니다(레24:10-16). 성경에서 하나님이나 그분의 백성을 향해 거칠고 상스러운 말을 하였다는 의미는 욕설이나 저주의 말을 뜻합니다. 그런 욕설은 하나님께서 항상 죽음이란 형벌을 요청하십니다. 히브리어 "가다프"는 비난하는 말로 해를 입힌다는 의미로서 비유적으로 사용됩니다(민15:30, 절20:27).

5)대체 표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정도를 약화시켜서 오 마이 가쉬(Oh! my gosh)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 마이 갓'의 대체로 '오 마이 가쉬'가 사용되지만 신적인 이름에 대한 누양스를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대체되기는 했지만 강도가 약해진 것뿐이지 여전히 '의미 없는' 언어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약화된 대체표현들도 있습니다. 감탄사로서 놀람이나 흥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영어 표현 중에 "이크(gosh)", "야(golly)", "와(gee)"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은 잘 쓰

와 같은 완곡어법적인 표현에 대해 성경에서 금하는 직접적인 말씀들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표현 대신에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저속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언어표현은 어떤 문화(상부문화, 하부문화)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표현을 사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이런 표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성경적 안목에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성경적 진단

1)제3계명: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망령되이"라는 말씀은 "헛되이(vain, worthlessly, meaninglessly)"라는 표현입니다.

2)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6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E-Mail: t1scp0316@gmail.com

Q: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에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우니에서 Eui Lee집사

A: 성도님이 질문은 이 구절은 사실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분하게 석의를 하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로마카톨릭은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자의 대표인 노아시대의 불순종하던 영혼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전도하셨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하며 연옥설(purgatory)을 주장합니다.

어거스틴, 제롬, 알포드 같은 성경학자들 역시 이 구절을 가지고 노아시대 전도설을 주장합니다. 이는 선제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노아를

벤전3:19의 전파(에케퀼센)와 일반적 전파(유양겔리조마이)는 달라

통하여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도하셨으나 불순종하여 믿지 않음으로 그들이 지옥에 갔으므로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을 바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바른 해석은 개혁신학의 헬만 바빙크의 해석입니다. 그는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선포설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사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하나의 선포사건이다. 옥 중의 영들에게 그의 부요, 능력 개선의 선포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되심을 알리는 개신 선포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석의해보면 주경신학자인 이순한 목사의 "공동서신" 176-177페이지를 보면 19절은 18절의 계속이며 18절과 19절은 둘 다 시간적으로 부정 과거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정과거분사는 주동사의 동작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시제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가 됩니다. 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사건이 아닙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후입니다. 19절의 "영으로 전파하시니라"는 이 말은 주께서 육신으로는 40일 간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하나님나라에 관한 사실을 증거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으며 증거하셨으나 영으로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파하시니라'는 헬라어로 에케퀼센으로 이 말은 '선포하다', '공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셨다(전도)는 헬라어와는 다른 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말은 베드로서에도 3번 나오는데 그 단어는 헬라어로 "유양겔리조마이"입니다. 선포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에케퀼센이라는 단어와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오직 한 가지 곧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이 한 가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도님, 이 구절은 보통 평신도 뿐 아니라 목사님들도 풀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성경말씀은 죽은 후에는 복음을 들어 구원을 얻을 기회는 다시 있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9:27에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복음을 믿어 구원받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고 오직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 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과정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5 가을학기 강의 안내

- Sept 28-Oct 2(9월 28 -10월 2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ter & Dr. Stephen Park
- Oct 5-9 (10월 5-9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8(10월 8일) 특강: Dr. Scott Moreau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ter
- DI 8220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구약에서의 문화)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iberius Rata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러시아의 루틀(Rutul)



19,500 명의 루틀족은 현재는 러시아 남부인 코카서스 지역에 살고 있다. 그들은 주로 다게스탄의 남부의 사무르 강과 그 지류의 계곡에서 거주하고 있다.

산비탈에는 초목의 초목으로 덮이고 가족을 먹이기에 좋은 여름 목초지가 있다. 많은 산에는 연중 내내 눈으로 뒤덮인다.

루틀족은 북동부 코카서스 어족의 다게스탄 계통에 속하는 루틀어를 사용한다. 러시아어 지식은 널리 퍼져있으며, 중년층의 일부 사람들은 아제르바이잔어도 또한 사용한다. 아랍문자가 1830년대까지 루틀어에 사용되었다.

삶의 모습

전통적인 루틀족 이주민들은 하나의 "투흐(tukhum)" 또는 씨족에 속하는 몇몇 집단으로 구성된다. 각 투흐는 공동된 남자조상의 자손이 되는 가족들로 이루어진다.

1900년대 초까지 대부분의 루틀족은 방 2개가 있는 1-2층짜리 석조가옥에서 살았다. 창문 대신 벽에는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 있었다.

커피로 장식한다.

양과 소 사육이 루틀족의 주요 직업이다. 양치기의 기술은 오랜 동안 증진됐으며, 긴 겨울 동안에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루틀족은 전통적으로 육류, 낙농품, 밀가루로 만든 요리를 먹는다. 육류는 신선하거나 말려서, 그리고 소시지로 만들어 먹는다.

이전에는 결혼은 부모, 특히 아버지가 결정했으며 중매인이 종종

중재하기도 했다. 신랑의 선택은 그 가족의 부, 그 투흐(씨족)의 사회적 지위, 그의 부지런함, 건강 등에 의해서 결정했다.

신앙

이슬람은 10-11세기 동안 루틀족 사이에 널리 퍼졌다. 각 정착지에는 이슬람 사원(mosque)과 무슬림의 종교지도자가 있다.

무슬림 성인과 관련된 다른 장소로 몰려들었다. 주술치료가 인기가 있는데, 초자연적 힘과 보호력을 준다고 믿어지는 부적, 성수, 성인의 무덤에서 가져온 흙, 허위신을 부르는 각종 주문 등도 포함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대부분의 루틀족은 복음의 분명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들의 언어인 루틀어에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로 된 복음자료에 접근할 수가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게이 출입금지' 팻말 철물점주에 살해 위협

미국 대법원이 지난달 동성결혼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뒤 한 기독교인 철물점 업주가 '게이 출입금지'(No Gays Allowed) 문구를 붙인 뒤 살해 위협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뉴욕데일리뉴스 등 매체에 따르면 테네시주 워싱턴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제프 에이믹스(44)는 최근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내린 뒤 가게 유리창에 동성애자 출입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써 붙였다.

에이믹스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난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동성애자들에게 단호한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걸 알고 싶었다"며 "우리는 말할 자유가 있고, 종교 자유에 반하는 이들을 싫어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에이믹스는 "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다"라며 "내가 싫어하는 건 동성애자가 아니라 그들이 범하는 죄"라고 강조했다.

나이지리아교회서 자살폭탄테러, 예배중 5명 숨져

나이지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보코하람의 잔혹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보코하람이 정부에 투항하려는 무장



대원 11명을 참수했다고 4일 dpa 통신이 보도했다. 또 5일 한 여성 자폭 테러범이 예배 중인 기독교 교회에서 자살폭탄을 터뜨려 신자 등 5명이 숨졌다.

보코하람 무장대원 참수를 목격한 나이지리아 전국 도로운송노동조합 마흐무드 바바가나나는 "지난 3일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 주 미링가 마을에서 보코하람 본거지인 보르노 주 삼비사 숲을 탈출, 정부에 투항하려던 11명의 보코하람 대원이 참수당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요일인 5일 한 여성 자살폭탄범이 나이지리아 북동부 요베 주 포티스룸에 있는 한 복음주의 기독교 교회에서 자살폭탄을 터뜨려 예배 중인 신자 5명이 숨졌다고 AP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자폭범은 이날 오전 9시 55분경 요베 주 외곽 지가와 지역이 있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구원기독교교회에 침입, 자폭해 한 여성과 그녀의 두 어린이, 목사 등 예배자들을 숨지게 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보코하람은 앞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보르노 주 일대에서 라마단 단식성월을 지내는 무슬림을 사살하고 이슬람 사원에 자폭테러를 가하는 등 다발적인 공격을 감행, 약 200명을 학살했다.

일본, 한옥교회 세계유산 등재신청에 재부러

일본이 초기 교회 관련 유적 13건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 신청, 조 선말-식민강점기 한옥 교회를 묶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독일 본에서 제39차 회의를 개최 중인 세계유산위원회에 따르면 일본은 내년 터키에서 열릴 제40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나가사키 지역 교회와 기독교 관련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조선말-식민강점기 한옥교회를 묶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려는 우리측 움직임에 약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네스코는 성격이 비슷한 유산을 좀처럼 같은 세계유산으로 중복 등재는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16세기 중반 기독교가 일본 열도에 처음 도래한 이래, 특히 에도시대 유일한 서양과의 교섭창구였던 규슈 나가사키 일대에 남은 초기 교회 관련 유적 13건을 한데 묶어 'Churches and Christian Sites in Nagasaki'라는 이름으로 내년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했다.

이를 앞두고 홍보사업 일환으로 일본 측에서는 이번 세계유산위가 열리는 월드컨퍼런스센터 현장에 영문으로 작성한 관련 홍보물과 영상물을 무료로 비치했다.

일본은 이들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2007년 11월12일 추진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한 이래 본격적인 준비활동을 벌였다.

이와 같은 일본측의 움직임은 비슷한 논리 혹은 가치를 내세워 한옥교회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려는 우리 측 움직임에 일정한 타격을 줄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코모스(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인 최재현 건국대 지리학과 교수는 "일본이 치고 나가는 바람에 우리로서는 골치 아파졌다"면서 "일본이 등재를 추진하는 나가사키 지역 초기교회와 우리의 한옥교회화가 다른 점이 많다고 해도 우리가 취할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2009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재검토 용역을 하면서 향후 가능성 있는 유산으로 강화의 강화성당과 익산의 나바위성당, 진천성당, 고양 행주성당, 안성 구포동성당, 청주 성공회성당, 정읍 천주교신성공소, 원주 대안리공소, 서산 상흥리공소를 비롯한 한옥교회를 이미 지목했다는 점에서 더욱 아쉬움을 준다. 이들 한옥교회는 동서 문화를 융합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문화유산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들 교회는 대부분 서양 선교사 지도로 한국인 전통 목수가 지은 것들이다.

톰 크루즈 딸 위해 사이언톨로지 포기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가 딸 수리 크루즈를 위해 종교 사이언톨로지 포기를 결심한 것이 네티즌들이 긍정의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 연예매체 할리우드드라이프는 1일 톰 크루즈가 최근 수리 크루즈와 전화 통화를 하며 사이언톨로지 포기를 결심했다고 보도했다. 톰 크루즈의 한 측근은 "최근 전화 통화에서 수리 크루즈는 현재 배우고 있는 발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아빠한테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를 들은 톰 크루즈는 자신이 수리 크루즈의 발레 공연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매우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이언톨로지는 톰 크루즈가 수리 크루즈와 전 부인, 케이티 홈스와 가깝게 지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딸을 직접 보고 키울 수 있는 아바모르시의 삶을 위해, 그리고 딸을 위해 사이언톨로지 포기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톰 크루즈는 수리 크루즈의 생일, 학교 행사 등 수리 크루즈가 자라면서 겪는 모든 일들에 관심이 매우 많다"며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마도 점점 멀어져 가는 사이를 느꼈던 것 같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5면에서 계속)

스가라 5장 4절에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그 집을 사르리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3)무익한 맹세: 더 나아가 무익한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도 안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는 예배와 찬양, 경배와 기도에서 사용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은 우리가 다른 계명들에 비해 특히 범하기 쉬운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헛맹세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어 하느님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마 5:34-37).

4)저속어: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속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매우 드물게 이런 저속어인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똥"(렘3:8), "할례 받은 놈들"(갈2:21) "개들"(렘3:2)과 같은 표현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그것들이 적절한 상황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심판을 받거나 정당한 분노가 있을 경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언제나 경건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용어들이 남용되고 있으며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똥"이란 표현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은 가장 추하고 기본 나쁜 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또 성적인 표현을 가지고 사람들을 경멸하여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니며, 성령의 열매와는 정반대되는 언어 표현들로서 그리스도인이 사용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표현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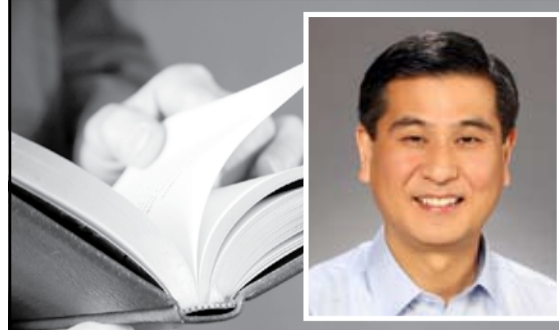
3. 결어

이런 언어 표현 전체가 신성모독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표현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와 문맥을 고려해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전통적이거나 매우 보수적인 환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매우 덕스럽지 못한 표현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문화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표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가 성경적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우리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버려버려야"(골3:8,9)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러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하며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 되는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도록"(엡4:29) 부름 받았습니.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엡5:4)고 합니다. 또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덕있는(빌4:8). 표현들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할 때에,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해 주실 것"(골4:6)입니다.

이메일: younsuklee@hotmail.com





#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26)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 1. 초대 교회 - 교부 (9) 변증 교부, 이레니우스

“이단이란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하는 말입니까?” 간혹 성도들로부터 받는 질문이다. 과연 누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이단으로 규정하는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이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있다. 이미 이단성을 지녔다고 판단된 자와 신종종교의 사상과 활동을 전문적으로 관찰하여 그 정보를 교회에 알려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도들은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이단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 그 속은 드러내지 않고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치장하여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있다. 이단성을 지닌 개인과 집단의 정치적 연계로 인하여, 교회가 입장 정리를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질문: 초대교회의 초기 변증교부들은 이단과 연관되어 어떤 문제를 고민하였으며, 후대 교회에 남긴 이단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속사도 교부 폴리카프(Polycarp)를 기억할 것이다.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스승의 고민을 함께 나누었다. 초창기부터 초대 교회를 힘들게 했던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Gnosticism)’였다. 요한이 요한일서 2장과 4장에 기록한 내용

머물면서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적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다. 직설적인 성격을 지녔던 그는, 그 후 이단에 대해 절대적으로 양보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영지주의에 대한 고민을 물려받은 폴리카프의 제자를 한 분 소개한다. 폴리카프의 설교를 들으며 성장하였으며, 스승의 사역을 계승하고 크게

헌신하게 되었다. 로마교회의 감독과 자신과 함께 성장한 친구들도 잘못된 사상을 쫓고 있다는 사실이 커다란 충격이 된 것이다.

■ 변증의 초점 이동  
이레니우스를 ‘최초의 조직신학자’ 또는 ‘교의학의 창시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무엇을 말하는가? 변

증교부의 글이 지닌 초점이 전과 달라졌다는 것이다. 어떤 변화를 말하는가? 초대교회는 초기부터 핍박과 순교가 일상인 상황 속에서 성장하였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은, 곧 영적으로 풍요한 삶을 선택하기 위하여 환경적인 어려움과 불이익을 기쁘게 수용한다는 결단이었다.

이레니우스가 활동하던 2세기에 초대교회는 여전히 어려운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이 더욱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전통 교회가 믿는 성경에 근거한 교리의 체계가 든든하게 세워져간 것이다.

### ■ 이단에 대한 변증

이레니우스는 “이단에 대한 논박”과 “사도적 선포”를 저술하였다. 후자의 경우, 영지주의에 대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학을 요약하는데 중점을 둔다. 전자는 그를 대표하는 책으로서 반영지주의의 글 중에 최고로 손꼽히고 있다. 이 책은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이 지닌 문제점을 비판하는 동시에 교회가 수용해야 할 진리의 규범을 과감하게 제안하고 있다. 이 책은 모두 5권으로 구성되었다. 1권에서는 영지주의자 발렌티누스의 사상적 근원이 되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학설을 설명한다. 2권에서는 발렌티누스의 문제점을 크게 다루는데, 그는 폴리카프도 날카롭게 비판했던 인물이다. 3권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를 통해 만물이 만들어졌다. 그는 항상 함께 있었고, 아버지가 지정한 시간에 근거하여...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 (13면으로 계속)

## 조직신학, 교의학 창시자... 그리스도사역 통해 얻는 하나님의 창조회복에 관심 이단출몰, 성경적이며 사도적 신앙의 뿌리 재확인 계기로 삼아야

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지만 그가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인간은 스스로 신비한 지식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였다. ‘영지’가 바로 그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지식이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아도 ‘영지’를 제대로 발견하고 믿으면 된다고 가르쳤다.

발전시킨 이레니우스(Irenaeus)이다. 그는 장로의 신분으로 폴리카프의 사역을 돕다가, 스승의 권유로 프랑스 리옹에서 활동하다 202년에 순교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변증교부이다.

스승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놓치지 않고 있던 이레니우스는 로마를 방문하여 영지주의자들의 영향력을 친히 확인한 후 평생 이단을 대항하는 일에

증교부의 글이 지닌 초점이 전과 달라졌다는 것이다. 어떤 변화를 말하는가? 초대교회는 초기부터 핍박과 순교가 일상인 상황 속에서 성장하였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은, 곧 영적으로 풍요한 삶을 선택하기 위하여 환경적인 어려움과 불이익을 기쁘게 수용한다는 결단이었다.

이레니우스 이후로 히폴리투스, 터툴리안, 클레멘트, 오리겐 등 유명 교부들이 영지주의에 대한 글을 후대에 남겨주었다. 3, 4세기에 초대교회는 여전히 어려운



## 정말 그랬을까?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12)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 새벽에 만나를 거두었을까?

흔히 새벽기도를 독려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새벽이었고 흥해를 가르신 것도 새벽이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었음을 강조한다. 정말 그런 일들이 새벽에 일어났을까?

흥해가 갈라진 사건을 살펴보자. 밤새도록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하셔서 흥해를 가르고 계셨다.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계셨다. 마침내 흥해가 다 갈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해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바다를 육

지같이 건넜다. 이 모든 일들은 한 밤중에 일어났다. 새벽녘에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다에서 나와 건너편에 올라가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은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하였다. 그들이 바다 속으로 모두 들어갈 때 하나님은 흥해를 다시 원상 복구 시키셨다. 그리고 이집트 군대를 모두 수장시키셨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로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출

14:27). 흥해가 갈라진 것이 새벽이 아니라 갈라졌던 흥해가 다시 합쳐진 것이 새벽이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새벽이 아니라 아침이었다. 위 구절에서 ‘새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boker(보케르)로 아침을 뜻한다. 물론 새벽도 포함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전 시간을 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그러므로 위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반드시 ‘새벽’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리고 흥해가 갈라지기 시작한 것은 새벽이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대로 밤중이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새벽 일찍 일어

나 들에 나가 그 만나를 거두었다. 정말일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출16:13-14).

하나님은 매일 아침 일찍이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늘에서 내릴 때는 이슬 같은 것이었다. 그것이 해가 뜨고 한참 후에 마르면서 만나가 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는 것은 새벽이 아니라 아침이었다. 새벽이 일어나지 않고 늦게 일어난 사람은 만나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날은 굶어야 했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다. 새벽에는 누구도 만나를 거둘 수 없었다. 해가 나고 한참 후에야 만나를 거둘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다. 그리고 이레째 되는 날 “새벽이 일찍이 일어나서”(수6:15) 여리고 성을 일곱 바퀴 돌았다. 그러자 여러

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당시 여리고 성의 크기는 10에이커 정도였다. 성 주변을 한 바퀴 도는데 30분 정도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혼자서 돈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인만 60만 명이었다. 몇 명이 돌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한 바퀴 도는데 한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일곱 바퀴를 돌려면 일곱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새벽이 아니라 낮 12시나 오후였을 것이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시 46:5). 그러나 하나님은 흥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한밤중에도 역사하신다. 여리고 성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낮에도 역사하신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저녁 때 일어났다. 예수님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 그러나 동시에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기도 하셨다. 새벽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고 철야기도도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새

벽기도만 특별히 잘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라리이다”(시88:13).

고벨료는 대낮에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예루살렘 교인들은 밤늦게 마가의 집에 모여 심야기도회를 가졌다.

하나님이 특별히 더 축복해주시거나 응답을 잘해주시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은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만 집중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 새벽형 인간은 새벽 기도를 좋아할 것이다. 새벽이 집중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후형 인간은 심야 기도를 선호할 것이다. 밤에 집중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기도하느냐에 대해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기도하든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이메일: jinhee1004@yahoo.com

# PRINTING & PROMOTION

# 프린팅 & 프로모션

BOOKS KOREANA

## 한국서적

BOOKS KOREANA, INC

월-토: 오전 9:30-오후 8:00

### 각종 인쇄물과 다양한 판촉물 교회 행사에 필수!!

판촉볼펜

주보/헌금봉투

교회책자

단체 T셔츠

책 만들어 드립니다.

각종 상패

타올

머그컵

교회/매장/기타단체

## 전화: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상담 환영!**

교회에서 행사할 때 수련회 단체 T셔츠 한글학교 단체복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드립니다.

이메일 상담과 주문  
bookskorea@gmail.com



# 모라비안(Moravian)이라 불리는 사람들 (1)

박시경 박사

(그레이스신학대학원 한국프로그램 디렉터)



## 들어가는 말

지난 메모리얼데이(Memorial Day, 5월25일, 미국헌정일)를 낀 주말에 오래 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펜실베이니아 주 베들레헴(Bethlehem, PA)을 아내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편도 650마일(1,040킬로)의 길을 멀다하지 않고 달려간 것은 그 지역에 300여년간 살고 있는 모라비안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인터넷상에서 그들에 대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지만 제가 원했던 것은 그들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저들의 삶을 현장에서 체험해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근대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윌리엄 케리(William Carey)의 선교보다 60년이 앞섰고,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의 선교보다 120년이 앞선 선교가 모라비안 선교였습니다. 근대선교, 특히 영국의 감리교회, 미국의 감리교회 갱신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자비량 선교(Tent-making Mission), 성육신 선교(Incarnational Mission)를 300여년 전부터 놀랍도록 실행에 옮겨 개신교 선교에서 큰 획을 그은 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 대한 평가는 제가 신학교에서 교회사 시간에서는 한 두 페이지의 기록으로 그냥 넘어갔어도 별다른 문제성을 느끼지 못한 채 35년을 그냥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부터 그레이스신학교(Grace Theological Seminary) 문화교류학 박사(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과정에서 세계선교역사(History of World Mission) 과목을 강의하면서 모라비안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눈물겹게 선교에 헌신했는지, 그리고 현재 저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조상들의 신앙 유산을 지켜나가고 있는가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모라비안을 포함한 독일 경건주의 운동이 영국을 거쳐 미국 교회에 영향을 미쳤고 (대각성운동), 미국교회가 100여년 전에 전한 경건주의 기독교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본다면, 모라비안에 대한 조명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회에 걸쳐 모라비안들의 신앙을 선교적 관점에서 재조명 해봅니다.

1. 모라비안 (Moravian)들은 누구인가?

모라비안들은 구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인 모라비아(Moravia)지방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더 크게는 보헤미아(Bohemia)지방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저들이 살고 있던 600여년 전의 유럽은 한마디로 크나큰 변화를 앞둔, 대혼란의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년 이상 유럽인들의 삶에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했던 카톨릭교회가 마르틴 루터가 주도했던 종교개혁 (1517년)으로 인해 엄청난 지각변동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개신교 신앙운동의 창시자인 독일의 마틴 루터(Martin Luther)가 1483년생이었고, 모라비안 신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잔 후스 (John Hus)는 그보다 100년 이상 앞선 1369년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라비안들은 기독교

역사상 독일의 루터교 신자들보다 100년 앞선 첫 개신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루터의 종교개혁의 길을 100년 전부터 저들을 통해 예비해 놓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잔 후스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모라비안들에 대한 설명은 충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15세기 유럽에서 카톨릭교회는 유럽 전 대륙에 걸쳐 종교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 전반에 걸쳐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에서 카톨릭의 주장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가차 없이 이단으로 정죄 받고, 화형이나 교수형에 처해진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신성로마제국을 대표하는 합스부르크(Habsburg) 황제들은 개신교 교도들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신성로마제국(Holy Roman Empire)은 거룩하지도 않았고 로마인도 아니었고, 제국도 아니었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Paul Pierson은 지적합니다(“선교학적 관점에서 본 기독교 선교운동사”, p.206).

유럽 각국의 황제들에게 로마카톨릭 교황청은 더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한 국가의 왕의 대관식도 로마 교황의 재가 없이는 불가능했고, 국왕의 결혼과 이혼도 역시 교황의 승인이 절

대적으로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기가 세기로 유명했던 헨리 8세 (Henry VIII) 왕은 자신이 원하는 이혼과 재혼을 교황이 승락하지 않자, 유럽의 일원으로 로마카톨릭의 국가였던 영국을 로마카톨릭에서 탈퇴하여 자신이 수장이 된 영국성공회 (Anglican Church)를 탄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신적인 전통 때문에 아직도 섬나라 영국은 유럽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유럽의 단일화에서 한 걸음 벗겨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영국은 유럽의 통합화폐인 유로화를 거부하고 자신의 고유한 화폐인 파운드화를 고집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교황은 교황청의 공금으로 용병을 고용하여 같은 형제 카톨릭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이탈리아와 프랑스간의 전쟁 등)에도 깊이 개입하여 교황을 지지하는 국가를 도와 상대편 국가를 패

전하도록 만들었습니다(이것을 오늘날 상황으로 축소 적용한다면, 한 대형교회에서 교구 간에 일어난 갈등 문제에 대해 당회장 목사가 교회공금으로 조폭을 고용하여 자기를 반대하는 교구원들을 혼내준다? 한다면 너무 지나친 비약일까?). 교황청의 이런 패악은 유럽 전역에서 수 백년에 걸쳐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여해야 할 교황청이 한 국가의 정치에 절대적으로 관여한 것은 물론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성직매매, 고위 성직자들의 심각한 윤리적 범죄(그래서 그 당시 유럽의 대성당과 수도원 주변에는 의례히 고아원들이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었지요), 경제적 범죄는 심각한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라틴어를 읽을 줄 모르는 일부 카톨릭 신부들이 라틴어 성경을 펴놓고 라틴어를 모르는 유럽의 무지한 농민들 앞에서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하는 것은 그 당시 유럽의 카톨릭교회의 웃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갈릴레오(Galileo) 같은 이탈리아 출신의 과학자는 교황청의 가르침인 천동설(지구는 고정되어있고,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설)에 반대하고 지동설(지구자전)을 주장했다고 해서 이단자로 정죄 받아 공개적으로 화형에 처할 당할 정도였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여해야 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 정치, 전쟁, 경제문제에 주도권을 행사하는 등, 견잡을 수 없이 세속화되면 반드시 교회는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도 그것은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럽의 상황은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라고 자처하는 교황의 이름으로 유럽교회가 영적 흑암 속으로 빠져 들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잔 후스는 그 당시 유럽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었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수도 프라하(Prag)의 찰스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총장까지 지냈던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프라하의 찰스교회의 주임신부이기도 했습니다. 성경 본문에 충실했던 후스의 신앙 양심은 비록 그 자신이 카톨릭 교회의 주임신부였지만 체코슬로바키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카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개인의 경건생활과 순결한 삶을 강조하며 타락의 길을 걷고 있던 로마카톨릭교회에 대해 가차 없는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3천편이 넘는 그의 설교는 평민들은 물론, 귀족과 왕족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만큼 복음주의적이었고, 건강한 사회 윤리를 외쳤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설교가 당연시되고 있지만 카톨릭교회가 지배하고 있던 잔 후스의 시대 유럽에서는 위협천만의 설교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철저히 성경의 진리에 입각했기 때문에 어떤 막강한 교권 앞에서 자신의 성경적 신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체코의 신앙인들을 독려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이여, 진리를 찾으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에 귀를 기울여라. 진리를 사랑하라. 죽음을 두려워 말고 진리를 사수하라. 진리는 교황의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것이다”(http://whitelake.tistory.com/115).

이단으로 정죄 받은 그는 카톨릭공의회(콘스탄스공의회, 1414년)에 소환되어 투옥과 더불어 견디기 어려운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처참하게 공개적인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화형 현장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신앙적 소신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공회가 임명한 주교들은 그의 사제복을 벗겨서 그를 강직시켰고, “이단들의 주도자”라는 글이 쓰여 있고, 마귀가 그려진 종이 머리를 그의 이마에 씌웠습니다. 그 글귀를 보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진정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 그렇다면 나라고 주님을 위해 이 덜 고통스러운 면류관을 다시 쓰지 말란 법 있는가? 이 따위가 뭐 그리 창피하단 말인가? 누가 뭐래도 난 그럴 것이니, 그것도 기꺼이 그럴 것이다”(John Foxe의 기독교 순교사 제4장, 교황들이 행한 박해)

## 모라비안 선교, 자비량 선교, 성육신 선교 본 보여 마틴 루터보다 100년 앞서 종교개혁 발판 만들어



###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시립대학교 교수)

## 그리운 찬송가 II

지난 달에 나간 “그리운 찬송가”라는 글을 읽고 어느 성도님이 메일을 하셨다. 이메일주소가 한 하단에 나오기는 하지만 글을 읽고 연락을 한 분은 처음이었다. 평신도 입장에서 보는 복음성가, 찬송가에 대한 생각이 깊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 분의 글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 성도님은 긴 글을 보내셨지만 지면 상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만 게재한다.

“신문에 실린 ‘그리운 찬송가’ 글을 읽고 공감하는 바가 커서 몇 자 올립니다. 저는 찬송가를 즐겨 부르며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평신도입니다. ‘그리운’ 하면 금강산이 따라 붙는데 찬송가가 따라 붙어서 그 글이 눈에 더 띄었나 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기타와 드럼으로 대예배가 시작됩니다. 아마도 요즘 교회예배의 추세인가 봅니다. 그러나 아주 전통적인 예배양식을 고수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략-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로서는 그런 평을 할 자격도 없지만 교인들의 추세나 호감도를 따라가기보다는 찬양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하며 모든 것을 내어놓는 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해석이 다르기도 하겠지만 복음성가의 역사 지결한 분위기는 우리들의 잔치이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산 제사의 예배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도들의 연령에 따라서 교회의 리더들이 연구한 바가 있겠지만 저희교회만 하더라도 대예배의 신도들 연령이 50대 이상이 거의 70%이상입니다.

-중략-  
오래 전에 나온 복음성가는 그래도 멜로디가 중심이고 따라 부르기가 좋지만 요즘에 쏟아져 나오는 복음성가는 멜로디보다 리듬이 중심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 들이나 곡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이 따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곡들이 빠르고 리듬이 변화무쌍하여 따라 부르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아마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춰 작곡이 되나 봅니다. 교회예배가 생동감 있고 활기찬 모습이 있기는 하나 정작 앉아서 예배드리는 중년이상의 신도들은 그 분위기에 맞춘다는 것이 고역이기도 합니다.

-중략-  
그리움이라고 해서 꼭 옛것을 선호하자는 뜻은 아니지요. 좀 더 예배의 정체성을 찾자는 의미일겁니다. 예배의 주인은 주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넘게 몇 자 적어봅니다.”

이메일: lpyun@apu.edu

#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 2015년 7월 6일(월) ~ 16일(목)
-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 213.382.1450
-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한인타운 내 카타리나와 8가 코너에 있습니다

**조성근 목사** gstcenter98@gmail.com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방송설교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튜브 <http://www.youtube.com/user/cbsolomontv>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검색



## 2015년 부흥성회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1~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기도성회 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3일 인천강성교회(이철호목사) 8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11~13일 (함동동인천노회 남부시찰 재지부총회) 16일 과천교회(주현신목사) 18일 예복교회(소진우목사) 22~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일 LA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목사) 2~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12일 GST 신학생훈련(34차) 15일 사랑스런교회(배만석목사) 16~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2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3~25일 동춘교회(윤석호목사) 27일 백석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1~3일 예수비전교회(박정홍목사) 5일 총신대학교 신명수련회(김지연총장) 9~11일 (함동)테백시찰 연합성회 16~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3~26일 갈멜산강화금식기도원(강화) 29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6~8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13~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0~22일 안산 시민교회(이성관목사) 23일 칼빈대학교, 대학원 재물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7~29일 화명교회(이재욱목사)	1~1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8~2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4~27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31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1~4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8~1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1일 예루살렘교회(류병희목사) 22~24일 남수원노회 교사수습회(함동) 25~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3~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7~29일 천마산기도원(윤광석목사)	3~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9~12일 나사렛성결교단 연합성회(장소: 나사렛대학교) 17~20일 GST 신학생훈련(35차)(장소: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21~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반영하십니까, 한국기독교음악저작권협회입니다.

한국기독교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011년 4월 설립된 창작권자들을 비롯하여 한국복음성가협회, 한국찬양사역자연합회, 한국기독교음악인연합회를 중심으로 모인 한국의 크리스찬 작곡가, 음악인들의 모임입니다.

저희 한국기독교음악저작권협회는 금번 엘로힘EPP(대표 : 차종연)의 미주 한인교회대상 저작권료 요구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찬양을 작곡하는 300여명의 저작권자들을 대표하여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2010년 저희 한국기독교음악저작권협회는 발족을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협회의 여러가지 목적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찬양을 사적인 이익추구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몇몇 사업자들에게 대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몇 차례 찬양저작권을 이용하여 교회에 재정적인 피해를 입히고 찬양의 힘을 약하게 하려는 행동들이 이루어졌었고 그 행동을 지켜보며 한 목소리로 반대하지 못했던 무력한 찬양사역자들과 찬양저작권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같은 마음을 가진

한국기독교음악협회가 발표한 엘로힘의 미주한인교회 대상 저작권 징수 반대 성명서 일부내용

### 엘로힘 “미주한인교회 대상 CCM저작권 징수 반대” 한국기독교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관련 반대 입장 표명

한국기독교음악저작권협회(KGMCA, 대표 김석균 목사)는 최근 미주지역에서 일어난 엘로힘EPP(대표: 차종연)의 미주 한인교회 대상 저작권료 요구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찬양사역자 300여명의 저작권자들을 대표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설립된 찬양 저작권자들을 비롯해 한국복음성가협회, 한국찬양사역자연합회, 한국기독교음악인연합회를 중심으로 모인 한국의 크리스찬 작곡가, 음악인들의 모임인 KGMCA는 협회설립

목적은 찬양을 사적인 이익추구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몇몇 사업자들에게 대항하고자 함이라 밝혔습니다. KGMCA는 이미 몇 차례 찬양저작권을 이용해 교회에 재정적인 피해를 입히고 찬양의 힘을 약하게 하려는 행동들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지켜보며 한 목소리로 반대하지 못했던 무력한 찬양사역자들과 찬양저작권자들이 있어, 이를 계기로 같은 마음을 가졌던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 한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KGMCA는 미주 한인교회를 대상으로 일어난 저작권료 요구도 이전에 보았던 사업적 접근으로 판단하고 저희 한국기독교음악저작권협회는 반대의견을 내기로 협의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이번 사태는 KGMCA 소속된 일부 저작권자들이 엘로힘 측에서 미국에서 불려지는 저작권자들의 찬양저작권료를 받아주겠다는 제의에 호응을 했기에 나타나게 된 것이지만, 요구사항과 일정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자들에게 어떠한 정보도 공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협회는 엘로힘CMP의 한국대표인 채한성을 비롯, 소속 저작권자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불참을 권유했으며 금번 사건을 계기로 협회소속 저작권자들은 모두 엘로힘EPP와의 관계가 정리됐다고 밝혔다.

KGMCA는 저작권자들과 찬양사역자들은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더욱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적인 달란트로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고 보급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협회와 저작권자, 찬양사역자들의 노력을 기쁘게 보주시고 동역하는 마음으로 그 가치와 사역에 동참해주시길 때 한국교회와 선교사역에 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회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한국기독교음악저작권협회)



7월3일과 4일 미전역에서 독립기념을 기념행사가 열렸다. 사진 왼쪽은 뉴햄프셔주 포츠머스 시에서 열린 프레스콧 파크 아트 페스티벌 중 뮤지컬 퍼퍼먼의 한장면, 사진오른쪽은 불꽃놀이 장면

### 239번째 독립기념일 축하행사 3일과 4일 미 전역에서 일제히 실시

미 전역에서 239번째 미국독립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한 불꽃놀이와 퍼레이드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가 3일과 4일 양일간 일제히 실시



제130회 햇볕열방중보기도회가 지난 6월27일 부에나팍 제일교회에서 햇볕선교센터 기도원 주최로 열렸다.

### 세계선교와 지역복음화를 위해! 제 130회 햇볕열방중보기도회 성료

제 130회 햇볕열방중보기도회가 지난 6월 27일 오후 2시 부에나팍 제일교회(담임 노정해 목사)에서 햇볕선교센터 기도원(원장 정희욱 목사) 주최로 열렸다. 이날 기도회는 1부 예배, 2부 세계선교와 지역

됐다. 남가주의 산타모니카에서는 9번째 독립기념일 퍼레이드가 열렸으며 저녁에는 불꽃놀이가 실시됐다. 뉴햄프셔 주의 포츠머스 시에서는 하루전날인 금요일 저녁 불꽃놀이가 열렸다. 특별히 피스카타쿠아 강 프레스콧 파크에서 프레스콧 파크 아트 페스티벌이 열렸으며 3일 저녁에는 뮤지컬 “피터팬”이 상연됐다. 특별히 인터미션 시간에 불꽃놀이가 진행돼 이날 뮤지컬관람을 위해 모여든 관객들이 수준 높은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로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했다. 뉴욕에서는 맨해튼 이스트 리버에서 메이시스 백화점 주최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려 뉴욕시 주민들에게 환상적인 한여름 밤을 선사했다. (박준호 기자)

복음화를 위한 기도, 3부 성령님의 전인치유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용덕 목사(LA펜넬장로교회)의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햇볕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양우철 목사의 기도, 그리고 피터김 선교사의 특송이 있었다. 이어 정희욱 목사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사58:9-1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장규대 목사가 축도했다. 2부 순서는 장규대 목사, 이용덕 목사, 양우철 목사가 기도를 인도했으며, 아프리카의 잠비아, 탄자니아, 유럽의 몰도바, 우크라이나, 아시아의 일본, 중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베트남, 몽골, 중남미의 멕시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등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3부는 정희욱 목사와 장규대 목사의 사회로 치유집회를 가진 후 정희욱 목사의 축복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예성미주총회 서부지방회 주관 2015 목회자 평생교육 및 가족수련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수련회에 참석한 이종원 목사 가족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특히, 금번 수련회를 통해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다시 한 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다. 또한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을 느끼며, 자존감을 회복하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발서부터 내년 수련회가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문의: (213)434-1083 yangkyu0531@hanmail.net (기사제공: 예성미주총회서부지방회)

###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라” 예성미주총회 서부지방회 목회자가족수련회

예수교대안성결교회 미주총회 서부지방회(회장 김제임 목사)는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2015년 목회자 평생교육 및 가족 수련회’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호텔에서 50여명의 목회자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금번 수련회는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라’라는 주제로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목회자를 위한 목회 세미나와 기도회, 가족여행 ‘아빠를 부탁해’,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됐으며, 특히 선 후배간의 끈끈하고 아름다운 교제의 장을 이루었다. 이날 수련회 주강사로 나선 남가주 밴델교회 담임 오병의 목사는 네 번의 강의를 통해 “복음이야말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무기”라며, “건강한 교회의 원리, 복음의 능력, 복음과 세계비전, 행복모임”에 대해 실제적이고 도전적인 내용으로 강의해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안겼다.

### 제10회 커피브레이크 국제컨퍼런스 성황 주제는 “회복” 강사 유진소, 노진준 목사 등

커피브레이크(대표 백은실 집사)가 주최한 제10회 커피브레이크 국제 컨퍼런스가 ‘회복(느2:6)’이라는 주제로 1일부터 4일까지 퍼시픽 팜스 컨퍼런스 리조트와 아름다운교회(담임 고승희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유진소 목사(ANC논누리교회), 노진준 목사(한길교회), 백규식 장로, 그리고 임수전 전도사가 주강사로 나서 강의했다. 첫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름다운교회에서 열린 일정은 커

피브레이크 인도자 워크샵으로 시작됐으며 저녁 7시에 장소를 퍼시픽팜스 컨퍼런스 리조트로 옮겨서 진행된 환영 및 개회예배는 유진소 목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다. 둘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예배와 주제 강의, 소그룹 모임, 세미나로 진행됐다. 유원환 목사(피닉스한인장로교회/커피브레이크 자문위원)이 느헤미야 개관을, 송병주 목사(선한침지교회)가 ‘느헤미야의 기도와 리더십’, 백은실 집



제10차 커피브레이크 국제컨퍼런스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재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718)9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b>뉴욕새별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917)733-7387 45-16 162 St., Flushing NY 11358 chungkilee@yahoo.com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찬양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8:00(화-토)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겸송),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준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	<b>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886-6225, Fax: (718)762-468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ne.org	<b>뉴욕초대교회</b>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http://nydcchurch.org	<b>뉴욕목양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jy.org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찬양선교공부: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 찬양모임: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b>롱아일랜드성결교회</b>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 (516)333-1757, 목사관: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b>에번에셀신교교회</b>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찬양예배: 오전 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전 8:00(화-토)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j.us/	<b>에사랴교회</b> 담임목사: 손환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6:00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ocj.org	<b>퀸즈인인교회</b>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원을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96-4400 Fax: (718)89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
<b>한마음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마이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8: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akim@gmail.com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b>		<b>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b>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월-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www.pccv.org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b>브라질 서울교회</b>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b>브라질 새소망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5부예배: 오후 12:00 주일6부예배: 오후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b>칠레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주일5부예배: 오전 11:00 주일6부예배: 오전 11:00 주일7부예배: 오전 11:00 주일8부예배: 오전 11:00 주일9부예배: 오전 11:00 주일10부예배: 오전 11:00 주일11부예배: 오전 11:00 주일12부예배: 오전 11:00 주일13부예배: 오전 11:00 주일14부예배: 오전 11:00 주일15부예배: 오전 11:00 주일16부예배: 오전 11:00 주일17부예배: 오전 11:00 주일18부예배: 오전 11:00 주일19부예배: 오전 11:00 주일20부예배: 오전 11:00 주일2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2부예배: 오전 11:00 주일23부예배: 오전 11:00 주일24부예배: 오전 11:00 주일25부예배: 오전 11:00 주일26부예배: 오전 11:00 주일27부예배: 오전 11:00 주일28부예배: 오전 11:00 주일29부예배: 오전 11:00 주일30부예배: 오전 11:00 주일31부예배: 오전 11:00 주일3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3부예배: 오전 11:00 주일34부예배: 오전 11:00 주일35부예배: 오전 11:00 주일36부예배: 오전 11:00 주일37부예배: 오전 11:00 주일38부예배: 오전 11:00 주일39부예배: 오전 11:00 주일40부예배: 오전 11:00 주일41부예배: 오전 11:00 주일42부예배: 오전 11:00 주일4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4부예배: 오전 11:00 주일45부예배: 오전 11:00 주일46부예배: 오전 11:00 주일47부예배: 오전 11:00 주일48부예배: 오전 11:00 주일49부예배: 오전 11:00 주일50부예배: 오전 11:00 주일51부예배: 오전 11:00 주일52부예배: 오전 11:00 주일53부예배: 오전 11:00 주일54부예배: 오전 11:00 주일55부예배: 오전 11:00 주일56부예배: 오전 11:00 주일57부예배: 오전 11:00 주일58부예배: 오전 11:00 주일59부예배: 오전 11:00 주일60부예배: 오전 11:00 주일61부예배: 오전 11:00 주일62부예배: 오전 11:00 주일63부예배: 오전 11:00 주일64부예배: 오전 11:00 주일65부예배: 오전 11:00 주일66부예배: 오전 11:00 주일67부예배: 오전 11:00 주일68부예배: 오전 11:00 주일69부예배: 오전 11:00 주일70부예배: 오전 11:00 주일71부예배: 오전 11:00 주일72부예배: 오전 11:00 주일73부예배: 오전 11:00 주일74부예배: 오전 11:00 주일75부예배: 오전 11:00 주일76부예배: 오전 11:00 주일77부예배: 오전 11:00 주일78부예배: 오전 11:00 주일79부예배: 오전 11:00 주일80부예배: 오전 11:00 주일81부예배: 오전 11:00 주일82부예배: 오전 11:00 주일83부예배: 오전 11:00 주일84부예배: 오전 11:00 주일85부예배: 오전 11:00 주일86부예배: 오전 11:00 주일87부예배: 오전 11:00 주일88부예배: 오전 11:00 주일89부예배: 오전 11:00 주일90부예배: 오전 11:00 주일91부예배: 오전 11:00 주일92부예배: 오전 11:00 주일93부예배: 오전 11:00 주일94부예배: 오전 11:00 주일95부예배: 오전 11:00 주일96부예배: 오전 11:00 주일97부예배: 오전 11:00 주일98부예배: 오전 11:00 주일99부예배: 오전 11:00 주일100부예배: 오전 11:00 주일101부예배: 오전 11:00 주일102부예배: 오전 11:00 주일103부예배: 오전 11:00 주일104부예배: 오전 11:00 주일105부예배: 오전 11:00 주일106부예배: 오전 11:00 주일107부예배: 오전 11:00 주일108부예배: 오전 11:00 주일109부예배: 오전 11:00 주일110부예배: 오전 11:00 주일111부예배: 오전 11:00 주일112부예배: 오전 11:00 주일113부예배: 오전 11:00 주일114부예배: 오전 11:00 주일115부예배: 오전 11:00 주일116부예배: 오전 11:00 주일117부예배: 오전 11:00 주일118부예배: 오전 11:00 주일119부예배: 오전 11:00 주일120부예배: 오전 11:00 주일121부예배: 오전 11:00 주일122부예배: 오전 11:00 주일123부예배: 오전 11:00 주일124부예배: 오전 11:00 주일125부예배: 오전 11:00 주일126부예배: 오전 11:00 주일127부예배: 오전 11:00 주일128부예배: 오전 11:00 주일129부예배: 오전 11:00 주일130부예배: 오전 11:00 주일131부예배: 오전 11:00 주일132부예배: 오전 11:00 주일133부예배: 오전 11:00 주일134부예배: 오전 11:00 주일135부예배: 오전 11:00 주일136부예배: 오전 11:00 주일137부예배: 오전 11:00 주일138부예배: 오전 11:00 주일139부예배: 오전 11:00 주일140부예배: 오전 11:00 주일141부예배: 오전 11:00 주일142부예배: 오전 11:00 주일143부예배: 오전 11:00 주일144부예배: 오전 11:00 주일145부예배: 오전 11:00 주일146부예배: 오전 11:00 주일147부예배: 오전 11:00 주일148부예배: 오전 11:00 주일149부예배: 오전 11:00 주일150부예배: 오전 11:00 주일151부예배: 오전 11:00 주일152부예배: 오전 11:00 주일153부예배: 오전 11:00 주일154부예배: 오전 11:00 주일155부예배: 오전 11:00 주일156부예배: 오전 11:00 주일157부예배: 오전 11:00 주일158부예배: 오전 11:00 주일159부예배: 오전 11:00 주일160부예배: 오전 11:00 주일161부예배: 오전 11:00 주일162부예배: 오전 11:00 주일163부예배: 오전 11:00 주일164부예배: 오전 11:00 주일165부예배: 오전 11:00 주일166부예배: 오전 11:00 주일167부예배: 오전 11:00 주일168부예배: 오전 11:00 주일169부예배: 오전 11:00 주일170부예배: 오전 11:00 주일171부예배: 오전 11:00 주일172부예배: 오전 11:00 주일173부예배: 오전 11:00 주일174부예배: 오전 11:00 주일175부예배: 오전 11:00 주일176부예배: 오전 11:00 주일177부예배: 오전 11:00 주일178부예배: 오전 11:00 주일179부예배: 오전 11:00 주일180부예배: 오전 11:00 주일181부예배: 오전 11:00 주일182부예배: 오전 11:00 주일183부예배: 오전 11:00 주일184부예배: 오전 11:00 주일185부예배: 오전 11:00 주일186부예배: 오전 11:00 주일187부예배: 오전 11:00 주일188부예배: 오전 11:00 주일189부예배: 오전 11:00 주일190부예배: 오전 11:00 주일191부예배: 오전 11:00 주일192부예배: 오전 11:00 주일193부예배: 오전 11:00 주일194부예배: 오전 11:00 주일195부예배: 오전 11:00 주일196부예배: 오전 11:00 주일197부예배: 오전 11:00 주일198부예배: 오전 11:00 주일199부예배: 오전 11:00 주일200부예배: 오전 11:00 주일20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02부예배: 오전 11:00 주일203부예배: 오전 11:00 주일204부예배: 오전 11:00 주일205부예배: 오전 11:00 주일206부예배: 오전 11:00 주일207부예배: 오전 11:00 주일208부예배: 오전 11:00 주일209부예배: 오전 11:00 주일210부예배: 오전 11:00 주일21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12부예배: 오전 11:00 주일213부예배: 오전 11:00 주일214부예배: 오전 11:00 주일215부예배: 오전 11:00 주일216부예배: 오전 11:00 주일217부예배: 오전 11:00 주일218부예배: 오전 11:00 주일219부예배: 오전 11:00 주일220부예배: 오전 11:00 주일22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22부예배: 오전 11:00 주일223부예배: 오전 11:00 주일224부예배: 오전 11:00 주일225부예배: 오전 11:00 주일226부예배: 오전 11:00 주일227부예배: 오전 11:00 주일228부예배: 오전 11:00 주일229부예배: 오전 11:00 주일230부예배: 오전 11:00 주일23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32부예				



# 동부교계 게시판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영수 목사) 교단 신학교인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준 박사)가 2015년도 가을학기 주, 야간 학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대학부: 신학과, 선교학과(고졸, 4년) △대학원: 목회학(대졸, 3년), 기독교교육학(대졸, 2년) 선교학(대졸, 2년) △여교역학과(고졸, 3년). 제출서류는 입학원서 1통, 목사추천서 1통,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신앙고백서 1통, 사진, 입학전형료 30달러. 원서접수마감은 9월 4일(금) 오후 6시이며 입학시험은 9월(토) 오전 11시, 면접 오후 2시.

▲문의: (718)463-7163

## 퀸즈장로교회 2015년 단기선교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2015년 단기선교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온두라스: 7월 11일-18일 △중국: 7월 12일-25일 △니카라과: 7월 13일-18일 △필리핀: 8월 1-8일 △인도&케냐: 8월 10일-20일 △캄보디아: 8월 17일-27일. 동 교회는 출발에 앞서 파송예배를 드린다.

▲문의: (718)886-4040

## 뉴욕연회 한인연합감리교회 평신도 훈련과정

UMC 뉴욕연회 한인연합감리교회 코코스(회장: 조건삼 목사)가 주관하는 뉴욕연회 한인연합감리교회 평신도 훈련과정이 7월 19일(주)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뉴욕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열린다. 참가대상은 신전집사, 권사, 장로(명예, 이명포함)로 훈련과목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정지기론: 장재웅 목사(몽아일랜드 연합감리교회) △교리: 이용보 목사(뉴욕한인교회) △장정: 김성찬 목사(몽아일랜드 서부지역 감리사) △교회론: 김영식 목사(뉴욕베델교회). 참가비는 1인당 100달러(저녁포함).

▲문의: (718)864-6682 이용보 목사(신령직제위원장)

## 뉴욕원로목사회 7월 정기 월례회

뉴욕원로목사회(회장 홍상철 목사) 7월 정기 월례회가 15일(수) 오전 11시 커닝햄 파크(196-10 유니온 터카이크)에서 열린다. 차편이 필요한 분은 H-마트 주차장(156 St. 노던블러바드)에서 오전 10시 정각에 출발하는 교회밴(1대)을 이용하면 된다. 초청 교회는 뉴저지하나인교회(담임 이학권 목사).

▲문의: (917)412-0399, (631)858-0043

## 미드웨스트대학교 2015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송 박사)가 2015년 가을학기 학생모집을 한다. 학위과정은 ESL 프로그램과 △학사(BA): 경영학, 음악, 신학, 기독교교육 △석사(MA): 상담학, 교육학, 음악, 영어교육(TESOL), 신학(M. Div) △박사(D. Min): 목회학(상담, 기독교교육, 선교, 목회학), 음악, 리더십. 학위취득 방법은 온캠퍼스(SEVIS I-20 발행)와 온라인(세계 어느곳이나), 블랜드 강(소집강의와 온라인 교육 병행)이 있다. 미주리 주 웹츠빌 본교와 워싱턴DC 캠퍼스가 있다.

▲문의: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회복성회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이만호 목사)가 8월 14일(금)부터 16일(주)까지 박순 목사(인전 주안중앙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 회복성회를 갖는다. "영권 물권 인권의 회복성회"라는 주제로 금, 토요일 저녁 8시, 토요일 새벽 5시30분,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등 총 5회.

▲문의: (718)461-7835, (718)938-1777

## 미디어중독 다스리기 및 자녀양육 세미나

"미디어중독 다스리기 및 자녀양육 세미나"가 7월 26일(주) 오후 1시30분 뉴욕감리교회(담임 강원근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조희창 목사(낮은울타리 문화선교회 미주본부 대표간사).

▲문의: (516)681-1713

# 신임 회장 장경혜 목사, 부회장 권캐더린 목사

##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제7차 정기총회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 했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 했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전희수 목사) 제 7차 정기총회가 7월 6일 오전 10시30분 뉴욕소방장 로교회에서 열려 신임 회장에 장경혜 목사가 선출됐다.

1부 개회예배는 장경혜 목사 사회로 기도 심회자 목사, 말씀 이은희 목사, 특송 안경순 목사 권캐더린 목사, 헌금기도 정숙자 목사, 축도 전희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은희 목사는 담후 2장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인정된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 회무는 전희수 목사의 개회기도 후 회장인사에 이어 업무보고, 제

정보고, 감사보고가 있었다.

총무 김정숙 목사는 △매월 각 지역별로 열린 중보기도(NY, NJ, CT) △이웃사랑성탄찬양축제 및 장학금 전달 △목회자 예배 세미나 △여성목회자의 날 △회원교회 창립예배 △전도 집회 △제7차 북미주연합컨퍼런스 △뉴욕가정상담소 주관 가정폭력근절 침묵행진 참여 △다민족축날 떡국 나눔 봉사 △민주평통주관 통일기도회참여 등 한 회기의 다양한 모임과 행사를 보고했다

회계 조상숙 목사는 수입 38,457달러, 지출 28,115달러, 잔액 10,341.94달러로 재정보고를 했다.

선관위원장 이미선 목사의 주도로 진행된 임원선출은 회장 후보 장경혜 목사, 부회장 후보 권캐더린 목사가 거수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 부회장에 각각 선출됐다.

(기사제공: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 뉴욕장로교회 이성한 목사 전격 사임

## 당회 사퇴요구...5일 공동의회 투표는 68% 반대

지난 7월 5일 뉴욕장로교회는 이성한 담임목사 사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공동의회를 3부 예배 후 열었다. 이 공동의회는 한주 전인 6월 28일 동 교회 당회가 발표한 이성한 목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의사를 표명했고 노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후속조치다.

공동의회는 구자범 목사(PCA 한인동북부노회 노회장)가 인도했다. 담임목사의 사임은 노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노회에서 다루기위해서는 개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열어야 한다. 이날 공동의회 투표결과 유효표 597명중 3분의 2가 넘는 403명(68%)이 이성한 목사의 사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투표에 앞선 입장표명에서 이성한 목사는 "공동의회 결정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리라 믿는다"라고 말했고, 당회는 유인물을 통해 "당회는 성도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말했다.

투표결과가 나오자, 공동의회 도중 이성한 목사와 당회원들의 모임이 열려 이성한 목사는 당회원들에게 사임요구 철회 의사가 없는지를 물었다. 7명의 당회원 중 과반수 이

상이 유인물 내용과 달리 이성한 목사의 사임의사를 고수했다.

그러자 이성한 목사는 사임하겠지만 일정기간 교회에 남아 상황을 정리하는 기간을 달라고 했지만 교회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당회원들에 의해 거절당했다.

인터넷 언론 아멘넷 보도에 의하면 이성한 목사는 25일 저녁 당회원들과 만나 사퇴 종용 의사를 처음 들었고, 다음 날인 26일 사직서를 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루 만에 전격적인 사임결정을 한 것이다.

당회가 배부한 유인물에 따르면 △2015할렐루야대회에 교회 찬양대를 보낸 것 △별관 노인 아파트 건축 △교인들이 교회 떠나는 이유 △말씀선포 △한인인민교회에 대한 이해부족과 자질문제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성한 목사는 뉴욕장로교회 4대 담임목사로 청빙 받고 2013년 7월 초 부임해 만 2년 동안 사역했다. 지난해 9월에는 임직식을 갖고 7명의 장로를 세웠다. 이들은 당회원이 된 지 9개월여 만에 담임목사의 사퇴를 요구한 셈이 됐다.

(유원정 기자)

# 뉴저지교협, 사모 블레싱 코이노니아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병준 목사)가 지난달 29일 뉴저지 지역에서 사역하는 사모 25명을 초청해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 10시 행복교회(담임 이병준 목사)에 모여 2대의 밴에 나눠 타고 틴톤폭포(Tinton Fall)에 위치한 양부한 목사의 자택으로 이동, 이에 스터 목사의 설교로 예배를 드렸다.

이어 각종 별미 특식 점식식사를 한 후 바닷가로 이동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엄순희 목사 설교로 폐회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모들은 목회현장에서의 여러 일들을 나누며 교제를 통해 회복과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리: 유원정 기자)

# 이노비, 플러싱 지역양로원에서 200회 공연

이노비(대표 강태욱)가 지난 2일 오후 2시30분 플러싱에 위치한 유니언플러자케어센터에서 한인교단인족 어르신 100여명을 위한 무료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노비는 이 공연이 지역사회 봉사 200회째 공연이라 그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제임스 & 니콜조 파운데이션과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으로 연대음대 학사, 맨해튼음대 석사, 메네스음대에서 전문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뉴욕주립대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메조소프라노 박영경과 현재 맨해튼음대에 재학 중이자 각종 화려한 수상경력의 바리톤 백성중, 맨해튼음대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몽클레어주립대에 재학중인 소프라노 백성화가 함께했다.

이 외에도 세계적인 콩쿨에서 다수 수상한 피아니스트 박주영과 바이올리니스트 박유진이 함께했다. 특히 백성중, 백성화 그리고 박주영, 박유진 남매가 참여해 더 의미 있는 연주회가 됐다.

이 날은 이노비에서 꾸준히 봉사해왔던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등 20여명이 함께해 200회 공연을 축하하며 더욱 자리를 빛냈다. 이노비 김재연 사무총장은 "이노비가 그동안 열심히 소외된 분들을 위한 향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며 달려와서 벌써 200회째 공연을 맞고 있다. 미국, 한국, 중국에서까지 행복을 널리 전달하고 있는 이노비에게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이노비)



이노비 200회 공연 출연자들과 후원자들이 함께 기념촬영 했다



# 기사수첩

## 2015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를 마치고

지난 목요일 뉴욕의 기독교인 기자들이 모처럼 모임을 가졌다. 좀처럼 없는 일지만 할렐루야대회를 마치고 뉴욕교협이 평가회를 갖지 않는다는 정보에 의해 급조된 모임이라고나 할까. 급한 연락에 한두 명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대체로 오랜만에 우리(?)만의 식사였다. 뉴욕 아니, 미주 한인교계의 가장 크고 효력적인 대회로 알려진 할렐루야대회가 수년 전부터 참여도가 줄어들고 있다. 그 원인은 뉴욕한인사회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교회를 대표하는 뉴욕 교협의 문제라는 것도 관계자들 대부분은 알고 있다.

원인도 알고 문제점도 알고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부족 또한 뉴욕교계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이번 2015년 할렐루야대회도 무성한 소문 속에서 준비되고 치러졌다. 어쩌든 대회를 마치고 대회 주최 뉴욕교협이 임원모임으로 평가회를 대신했다는 것은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은 주최 측의 마음을 알아줘야 하는 것인지...

그날 여러 이야기가 허심탄회하게 오갔다. 5차 준비기대회에 2번 나타난 준비위원장, 예정되지 않은 즉흥적 순서가 많았던 대회순서와 세련되지 못한 진행, 목회자세미나가 평신도지도자까지 포함된 것, 세미나 장소 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불통, 전도대회와 복음화대회의 차이, 강사의 재정 후원 등 지적사항이 대두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속사정까지 꿰뚫은 뒷이야기도 이어졌다.

또한 지나간 것보다 앞으로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연결됐다. 뉴욕교계가 이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확실한 것은 뉴욕 뿐 아니라 미주 전체에 한인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미 1세대 교회들의 리더십이 바뀌고 있고 이민이 줄어들고 있는 이 때에 한인교회들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등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별 뾰족한 방법이 제시되지 못했다.

그러나 다만 언론, 특히 기독교 언론으로서 한인교계에 어떤 도움과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돌아서는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았다. 40년 뉴욕교협 역사를 돌아보며 '시행착오는 이제 그만!' 외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차라리 미국교협처럼 공채 사무총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기적 연속선상에서 교협의 발전을 기대해봄은 어떨까.

(유원정 기자)

# 목사 청빙

1. 목사 및 부교역자
2. 사명감 있는 청년
3. 자격
  - 1) 장로교단에서 사역, 경험 있는 분
  - 2) 목회자로서의 소명의식이 투철한 분
  - 3)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4) 운전 경험이 있고 운전가능한 분
4. 제출서류
  - 1) 이력서(사진첨부) 1통
  - 2) 자기소개서 1통
  - 3)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1통
  - 4) 목사 안수 증명서 1통
  - 5) 주민등록 등본 1통
5. 제출마감 2015년 7월 31일까지 제출 요망
6. 기타사항
  - 1) 우편접수 가능(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2) 1차 선임되시는 분에게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 3) U.S.A 또는 CANADA 거주자 환영
7. 제출처 192-24 64 Circle #2B Fresh Meadows NY 11365  
뉴욕서울장로교회 한문수 목사 (718)423-0343

대한예수교 장로회 **뉴욕 서울 장로교회**  
목사 청빙 위원회



# 교계연합 체육대회 및 어린이 사생대회 성황

##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 주최, 족구 1등 LA연합팀

오렌지카운티(OC) 기독교평신도연합회(회장 유우경) 주최 교계연합 체육대회 및 어린이 사생대회가 지난 6월27일 세리토스 소재 벨리크리스천 하이스쿨에서 OC교회협의회와 OC목사회 후원으로 OC평신도연합회주최 교계연합 체육대회 및 어린이 사생대회가 세리토스 소재 벨리크리스천하이스쿨에서 열렸다



OC평신도연합회주최 교계연합 체육대회 및 어린이 사생대회가 세리토스 소재 벨리크리스천하이스쿨에서 열렸다

올해는 6월 26일 미연방 대법원에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가족의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린 법안을 통과 시킴으로써 이제는 6.25뿐 아니라 6.26의 창조 질서 붕괴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후, 한국에서 '우리 동네 예체능' 프로그램 출연자로 활동한 축구 국가대표 강승호 감독은 "이민자들이 함께 모여 경기를 통해 기량을 겨루며 친목하는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분이 된다"며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강 감독은 지난주에 있었던 미주 한인 체전 참석차 미주지역 방문 중에 본 대회를 참관했고, 이어서 열린 족구경기 심판 자격증을 위한 세미나를 주관했다.

이날 경기는 나침반교회(민경엽 목사), 감사한교회 YDC 팀(김영길 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박재만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남성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풀러신학교 유학생 팀, 족구팀 결성이 어려운 몇 개 교회들이 연합해 LA연합팀, OC연합팀, 밴주라 지역에서는 새생명교회(승광철 목사)를 중심으로 밴주라 연합팀 등이 참가했다.

이날 경기는 족구 1등은 LA연합팀, 2등은 OC 연합팀, 3등은 밴주라 연합팀에게 돌아갔다.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는 1981년도 오렌지카운티와 인근 지역을 포함한 모든 교회 평신도들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 연합사역을 펼치고자 창단해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조찬기도회로 모여 말씀집회 및 연합성가제 등으로 지역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있다.

다음 조찬기도회는 8월 첫째 토요일 7시, 장소는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 교육관에서 열린다.

▲평신도연합회 관련 문의: (213)500-5449 (기사제공: OC평신도연합회)

# 서부교계 게시판

## 더넛트 사운딩라이츠 콘서트

더넛트(대표 다니엘박 목사) 파킹랏 콘서트가 18일(토) 오후 7시30분 가주영아학교 파킹랏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한국에서 활동 중인 크리스천 인디밴드 사운딩라이츠 공연으로 펼쳐지며 래퍼 CRENI가 찬조출연 한다.

▲문의: (213)999-4909

## 소망소사이어티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소망소사이어티(이장주 유분자 장로)는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13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갖는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한인변호사협회 창립자이자 소망소사이어티 법률고문인 서동성 변호사가 맡는다. 상담내용은 일반 법률에 관한 것이며 상담을 원하는 자들은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해야 가능하다.

▲문의: (562)977-4580

## 울타리선교회 창립 16주년 기념예배

울타리선교회(대표 나주옥 목사)는 창립 16주년 기념예배를 18일(토) 오전 10시30분 울타리선교회 예배처소인 Ray of Light Missionary Baptist Church(4259 S. Western Ave)에서 개최한다. 이날 저소득층 가정의 고교생 1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문의: (213)819-3300, 595-7073

# 제2회 사랑의 책가방 및 학용품 후원모집

## KFAM, 위탁아동 위해...7월말 마감

한인가정상담소(KFAM 소장 카니정조)는 작년에 이어 위탁 아동들을 위한 제2회 사랑의 책가방 및 학용품 후원(Backpack Drive)자를 모집한다. KFAM은 위탁아동들을 돕기 위한 '동지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8월 개학시즌을 맞아 지난 7월 1일 시작된 후원모집의 Backpack Drive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KFAM 에스페송 동지찾기 프로젝트 디렉터는 "위탁아동들의 경우 등교할 때 학용품은 물론 책가방조차 준비되지 못한 채 등교하게 된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가 아이들의 발달에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학용품과 가방을 준비해 아이들이 학교 가는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처음 실시한 작년의 경우 100개의 책가방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필요한 학용품이 들어있는 책가방 336개가 모여져서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카니정조 소장은 "작년에 처음 실시할 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100개의 물품이 모금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실시하고 보니 예산을 뛰어넘은 336개의 물품이 모금됐다. 이는 우리 한인들이 사랑과 정이 많기에 가능했으며 한인으로서 많은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송 디렉터는 "336개의 물품들은 한인아동뿐만 아니라 타 아시아계 학생들에게도 전달됐다. 이는 우리 한인커뮤니티가 한인들 외에 타 커뮤니티도 감싸안을 있는 지력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제2회 사랑의 책가방 및 학용품 후원에 동참할 분들은 25달러와 50달러의 후원(pay to the order: KFAM, 메모란에 Backpack Drive)을 통해 책가방 혹은 학용품의 후원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방과 학용품 구입해서 후원해 도 되는데 필요한 학용품들은 가정 상담소에 문의해 작성된 품목리스트를 받아서 구입하면 된다.

▲후원문의:(213)235-4849 김로사 rkim@kfamla.org, 동지찾기 포스터케어 문의: 에스페송 esong@kfamla.org (213)235-4861 (박준호 기자)



LA언약교회 창립9주년 예배를 마치고 당회원들이 케익을 자르고 있다

#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는 교회"

## LA언약교회 설립 9주년 예배

LA언약교회(담임 고귀남 목사) 창립 9주년 예배가 5일 오전 11시 열렸다.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고귀남 목사의 사화로 열린 예배는 김영규 장로가 기도했으며 고귀남 목사가 '창립 9주년'(왕상 21:1-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고 목사는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은 포도원지기인 나봇에게 포도원을 요구하지만 거절당한다. 나봇이 아합왕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그 땅을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수많은 대가와 과정을 통해 얻은 땅으로 생각했다. 또한 민수기 36:7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조건을 대도 절대 팔수 없다'는 말씀에 순종해서이며, 설령 그 땅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희년이란 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어서"라고 설교했다.

고 목사는 "본문의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한다.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교회"라며, "이러한 교회를 만들었으

면 유지하며,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목숨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목사는 "나봇이 포도원을 목숨을 다해 지켰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교회라면 목숨을 바쳐 지킬뿐 만 아니라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나봇이 지킨 포도원을 교회로 본다면, 아합왕은 세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나봇은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나가는 신앙인들이다. 오늘 LA언약교회가 창립9주년을 맞이했다. 언약교회가 누구의 교회이며, 누가 지키는 교회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지 바로 알아야 한다. 언약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의 분량을 쌓아 세상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어떠한 것도 침투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되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세시봉 윤희주 장로의 노래와 음악이야기'가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남가주 3곳의 교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새생명비전교회에서 열린 첫날공연에서 윤희주 장로가 노래하고있는 모습

# '세시봉 윤희주 장로의 노래와 음악이야기' 성황

## 남가주 3 교회에서 열려...한류 문화 통해 복음전도

'세시봉 윤희주 장로의 노래와 음악 이야기'가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남가주 3곳의 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윤희주 장로가 이민생활에 지친 한인들을 위해 세시봉 시절의 음악 노래이야기를 비롯해 최근에 겪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자신의 간증과 함께 전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26일에는 오후 7시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에서 가진 첫 번째 콘서트에서 윤희주 장로는 "나이에 비해 동년이다보니 아이들과 함께 있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다"며 청중들에게 유쾌함을 전한 뒤 "씨스타, 소녀시대 등 아이들 그룹들과 교재를 나눌 때가 있다. 그들을 통해 전 세계에 한류문화가 전해지는걸 보게 되는데 한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중문화라는 이용한 선교방법"이라고 언급하며 "대중음악과 더불어 복음이 한류를 통

해 전해질수 있도록 중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콘서트는 27일 오후 7시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28일에는 오전 11시45분 ANC 은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에서 각각 열렸다.

(박준호 기자)



KFAM주최 제2회 위탁아동들을 위한 개학맞이 책가방 및 학용품 후원모집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에스페송 동지찾기 프로젝트 디렉터가 설명하고 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h3>감사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9:30, 11:30</p> <p>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3>나성순복음교회</h3> <p>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7:30(영양)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9:30, 11:30</p> <p>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3>나성영락교회</h3> <p>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7: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mak.com</p>	<h3>나성제일교회</h3> <p>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학교: 오전 6:00(토)</p> <p>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h3>나침반교회</h3> <p>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7:30 EM, 대학부: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amp; Puente) / www.nachimban.org</p>		
<h3>남가주든든교회</h3> <p>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p> <p>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drock@gmail.com</p>	<h3>남가주리더교회</h3> <p>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www.scrdm.org Tel: (213)215-2202, Fax: (213)977-1183 1838 S. Western Ave., L.A., CA 90018</p>	<h3>남가주사랑의교회</h3> <p>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영양예배: 오후 7:30 영양예배: 오전 5:30(월-토)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3>대흥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kc.org</p>	<h3>등문교회</h3> <p>담임목사: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영양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p> <p>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7 www.gkpc.org</p>	<h3>디아스포라선교회</h3>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p> <p>Tel: (213)559-7728 (2차) 박경희, 사택(818)893-8607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k L.A., CA 90033</p>	<h3>드림교회</h3> <p>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7: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6:00(토)</p> <p>Tel: (626)793-0880, 082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p>
<h3>미주영락교회</h3>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380-8377, 8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3>미주평안교회</h3> <p>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창년)영양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www.mpcj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3>빛과 소금의 교회</h3> <p>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p> <p>Tel: (310)749-0577 3521 Lomita Ave., Torrance CA, 90505</p>	<h3>베델인교회</h3> <p>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 오전 7:15 주일 2부: 오전 9:00 주일 3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창년) 성인영양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p> <p>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4 Irvine, CA 92612 www.bkc.org</p>	<h3>복음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대학부) 영양예배: 오전 7:00(대학부)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예배: 오후 6:00(토)</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3>세계소망교회</h3> <p>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3>요셉선교회</h3> <p>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p>
<h3>얼바인침례교회</h3> <p>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00</p> <p>www.irvinechurch.com / e-mail: pastor@irvinechc.org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h3>워셔크리스천교회</h3> <p>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양) 수요예배: 오후 7: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찬양예배: 오후 6:00</p> <p>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h3>은혜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성경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영양예배: 오전 9:30, 11:30</p> <p>www.gracemc.com / www.chc.org Tel: (714)448-6200, Fax: (714)448-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3>주님의영광교회</h3> <p>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p>	<h3>좋은마음교회</h3> <p>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예배: 오후 6:00(토)</p> <p>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h3>코너스톤 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ornestonew.com / e-mail: pastor@cornestonew.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3>토렌스조은교회</h3> <p>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평)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창년) 장미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p>www.torran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독버섯” 대기총 동성애대책위, 퀴어축제 반대 시민대회

대구지역 교계는 5일 대구 중구 동성로 CGV 대구한일 앞에서 ‘동성애 조장 중단 촉구 교회연합예배 및 대구시민 대회’를 개최하고 남성 간성접촉에 따른 에이즈 감염 위험성 등 동성애의 폐해를 알렸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대기총) 동성애반대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회에서 대구지역 1200여명의 성도들은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성근 대구 요셉성형외과 의사는 “수십년 전 지방의료원에 근무할 때 에이즈에 걸려 쓸쓸히 인생을 마감하는 한 동성애자를 돌본 적이 있다”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그가 했던 마지막 말은 ‘나무 외롭다. 동성애를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탄식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에이즈에 걸려 동성애자들

과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환자를 보면서 일반 환자와 전혀 다른 외로움과 비참한 최후를 봤다”면서 “국민일보에 보도된 한국의 첫 여장남자 김유복자씨의 고백처럼 동성애자의 마지막은 외로움과 질병뿐이다. 동성애는 절대 유전이 아니며 항문으로 하는 동성 간 성행위가 에이즈 확산의 주요인이라는 사실을 적극 알리자”고 강조했다.

김원평 부산대 교수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보다 더 위험한 에이즈를 방지하려면 동성애부터 막아야 한다”면서 “동성애를 사실상 두둔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강한 압력을 넣어 국민에게 동성애의 실체를 알리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미 법무법인 로하스 변호사도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 생활동반자법안을 기독교인이 적극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희중 대기총 대표회장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독버섯과 같은 동성애를 그냥 놔두면 대구는 물론 이 나라의 장래는 없다”면서 “우리가 앞장서 동성애를 억제시키자”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동성로 거리에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소수자 인권보호 명목으로 국민 대다수 표현의 자유 억압받게 됩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걸었다. 또 ‘동성애 에이즈전파 위험행동’ ‘에이즈약, 국민혈세’ ‘박원순 OUT 동성애 OUT’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어올렸다.

대구지역 동성애자들의 모임인 무지개인권연대는 이날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본점 앞에서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고 23개 부스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책자, 사진, 여성 성기 모양의 과자 등을 판매·전시했다. 이날 동성애자들

은 구경 허가도 받지 않고 동성로 야외무대를 사용했으며, 일부 동성애자들은 상의를 입지 않거나 속옷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했다.

동성애자들은 ‘병든 건 내가 아니라 병들었다고 하는 너’ 등의 팻말을 들고 대구백화점을 출발해 국제보상로, 중앙로를 거쳐 봉산문화거리 입구까지 2km를 행진했다. 성도들도 끝까지 ‘동성애 조장, 에이즈 확산, 세금폭탄’ 등의 팻말을 들고 퍼레이드 행렬 옆에서 시민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펼쳤다.

두 팔과 동성로를 지나던 정모(44)씨는 “이런 축제는 정말 피하고 싶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이런 것은 알려주고 싶지 않다”고 인상을 찌푸렸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은 서울 퀴어문화축제와 마찬가지로 남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 확산의 주요인이며, 에이즈가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주로 유행하는 질병이라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라며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한 인권이 아니다. 방종을 어찌 인권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로 대통령도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과 국민에게 서약하는 나라다”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조롱하는 듯 동성결혼이 정당하다는 오만

의 ‘범봉’을 두드렸다”고 지적했다.

교회연론회는 동성애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와 사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죽음의 문화가 코앞에서 어른거리는데, 아직도 나오는 상관없는 것쯤으로 방관하신 안 된다”면서 “(동성애 저지를 위해) 한국교회가 더욱 분발해야 하며 한국사회는 분명히 일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 “동성결혼법, 세계 가정의 위기” 한국교회연론회, 한국교회 적극적 역할 당부

한국교회연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30일 ‘동성결혼법, 미국의 위기, 세계 가정의 위기’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비판한 뒤 동성애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

다. 교회연론회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은 인간이 가진 방종과 교만의 바벨탑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 “성행위 묘사로 혐오감” 50대 서울시민, 퀴어문화축제위 경찰에 고발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광장 축제 때 음란공연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김진(58)씨는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퀴어문화축제조직위 강명진 위원장과 성명 불상자 등 수명을 경범죄로 처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퀴어문화축제 관계자들이 서울광장에서 퍼레이드를 하며 전신을 노출하고 성행위를 묘사하는 장면 등을 연출해 다수의 시민들에게 극도의 혐오감을 유발하고 대다수 국민의 윤리와 정서에 반하는 비행을 저질렀다며 경범죄

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퀴어문화축제조직위 강 위원장 등은 지난 28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 무대 및 부스와 천막을 설치했다”면서 “국내외 유명인사들, 축하인사와 댄스, 합창 등의 공연을 하면서 대중의 선량한 시민들과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장시간 동안 실오라기 같은 팬티 하나만 착용한 채 전신을 노출하고 성행위를 묘사하는 장면 등을 연출해 다수의 시민들에게 극도의 혐오감을 유발하고 대다수 국민의 윤리와 정서에 반하는 비행을 저질렀다며 경범죄

의 눈에 띄는 곳에서 극도의 거부감, 불쾌감,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시켰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건전한 전통문화와 대다수 국민의 윤리와 정서에 반하는 비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에는 광장 내에 동물반입이 금지되고 불경을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장은 이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받아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에 여러 마리의 중소형 개를 반입해 소란케 하고, 보드카 등 양주와 맥주 소주를 다량 소지해 음주하고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범행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온 국민이 중동호흡기증후

## 교계, 박원순 시장 주민소환 추진 기독교 중심... “동성애 조장 책임 묻는다”

일부 교계 단체들이 동성애 조장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독교당(대표 박두식 목사)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기독교당은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는 즉시 주민소환 서명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독교당은 앞으로 주민소환에 동

참하려는 교계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주민소환추진본부’를 발족할 계획이다.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추진하고, 서울 한복판인 서울광장에서 동성애축제가 열리도록 한 책임을 박 시장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기독교당은 “박 시장은 동성애 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않고, 남녀의 결혼과 자녀 출산을 통한 자녀의 행복을 추구하는 서울시민의 전통적 가치관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에 주민소환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성애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

고자 하는 시대정신에 반하는 무분별하게 밀려오는 외국의 반(反) 전통적 문화”라고 꼬집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예산낭비,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주민이 투표를 실시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게 목적이다.

주민소환은 취임 1년 뒤부터 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지난 1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박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려면 주민소환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은 공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지역 유권자의 10%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주민소환투표에서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이 찬성하면 즉시 해임된다.

하지만 실제 주민소환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007년 주민소환제도 도입 후 같은 해 9월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 2009년 8월 김태환 제주도지사, 2011년 여인국 과천시장 등에 대해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됐지만 모두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해 개표도 하지 못했다.

박두식 기독교당 대표는 “기독교당 외에 주민소환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러 단체들과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일 기독교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주민소환은 선관위에 등록된 분만 가능하다”며 “기독교당과 함께 주민소환을 추진할 개인 및 단체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장총, 장로교의 날 학술 포럼 “진보·보수 나뉘 한국교회 통일관 반성”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회장 황수원 목사)는 3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스탠포드 호텔에서 ‘2015 제7회 장로교의 날’ 사전 행사인 학술포럼을 열고 평화통일을 향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발제 및 논찬자들은 광복 70주년과 선교 130주년을 맞은 올해 한국교회가 통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부와 교회가 함께 남북교류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통일에 대한 교리적 일고’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문병호 총신대 교수는 “한국교회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일관성 있는 통일관을 갖지 못했다”며 반성을 촉구했다. 그는 “올해는 광복 70주년으로, 70이라는 숫자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면서 “70은 애굽에 내려간 야곱 가족의 숫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있던 해의 숫자이며, 종말을 다 채우는 숫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먼저 그리스도의 ‘진리’와 ‘의’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하나님이 베푸실 ‘

## “사람과 사람이 통합되는 통일 위해 갈등 씻어야” 한국교회연합, 한반도화해평화통일포럼 개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은 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화해평화통일포럼’을 개최하고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교회와 사회의 역할을 고찰했다. 발제자들은 한국교회와 사회가 ‘사람과 사람이 통합되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 인도주의적 지원과 갈등해소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국제 정치 무대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면서 “그걸 약화시키기 위해선 주변 강대국들에 통일한국이 군사국가가 아닌 물류와 통상, 문화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라는 안정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전 장관은 “통일은 국제외교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통일을 열망하는 남북한의 ‘구심력’에 달려있다”면서 “남북한이 정말 통일을 원한다면 사람과 사람의 결합, 운명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통합 기반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볼 수 있듯 서독 교회와 정부는 동독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다”며 “남북 통합 차원에서 구심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얼마만큼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느냐’에 있다. 통일을 위한 구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력과 물질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평화통일기독인연대 상임대표 박

화평을 ‘인에’ 가운데 소망해야 한다. 십자가의 능력을 강하게 붙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대사를 지낸 장기호 강남엘리트교회 목사는 논찬에서 한국교회가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을 꼽았다. 먼저 정부와 긴밀한 협의 채널을 유지하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확대하며, 지원물자 분배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요섭 총신대 교수는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정확한 역사적 평가와 해석, 적절한 대안 제시와 실천 노력이 함께 진행될 때 한국교회가 통일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대한 영적 책무를 다하고 ‘기독교다운’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술포럼은 7일과 9일 오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이어졌다. ‘2015 제7회 한국장로교의 날’ 행사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광복 70주년, 사랑으로 통일을 이루아가는 한국장로교회’를 주제로 열린다.

종화 경동교회 목사도 서독 교회와 정부의 인내, 장기적 포석, 인도주의적 지원이 동독 사람들의 마음을 샀으며 동독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 목사는 “동독 정부는 반체제 인사들을 서독에 넘기거나 수많은 돈을 벌었는데 심지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반체제 인사들을 양산하거나 양산을 방조한 흔적까지 있다”면서 “돈으로 따지면 서독이 동독에 퍼준 풀이 됐지만 동독 주민들을 서독으로 기울어지게 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동독은 반체제 인사를 정략적으로 양산해 돈을 벌었지만 동독 내 체제비판이 그만큼 늘어나 결과적으로 흡수통일을 자청한 동독 주민들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성경 속 이념과 교조주의에 충실한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북한 체제가 싫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며 호의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희생당한 동포의 사정이 가슴 아프다”며 선을 베푸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주제강연에서 “5·24 대북 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5년이 경과했음에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5·24조치 해제와 유지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면서 “이것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남북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에 대한 남한 청소년의 무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탈북민들이 같이 더불어 잘살고 남북문제로 인한 갈등의 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종교계가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 예장통합측 ‘청빙 결의는 무료’ 재차 확인 서울남노회 효성교회 전중식 목사

예장통합측 서울남노회 효성교회 사건이 일단락되는 시점에 다다랐다.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여미숙)는 지난 4일 효성교회(대표 전중식 목사)가 항소한 ‘위임목사청빙결의 무료 확인’ 재판에서 “효성교회가 2010년 9월 26일 결의한 전중식 목사 위임목사 청빙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중식 목사가 피고 교회 청빙위원회에 낸 이력서 허위 기재에 대해 효성교회의 청빙결의가 무효라는 총회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정되는 일곱 가지 사실을 근거로 하여, 전중식이 피고 교회에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허위 기재 부분은 위임목사 청빙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므로, 위 허위 기재를 바탕으로 피고 교회가 2010년 9월 26일자 공동의회에서 전중식을 위임목사로 청빙한 이 사건 위임목사 청빙 결의는 그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 “지역교회 목회자와 함께” 변화하는 채플수업 인덕대 학생 70% 이상 긍정 반응

미션스쿨의 채플수업이 달라지고 있다.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던 방법을 지양하고 학생과 ‘소통하는 채플’을 시도하는 곳이 늘고 있다. 학생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소규모 채플’에 학생 만족도 높아=서울 노원구 초안산로 인덕대는 지난 3월부터 ‘지역교회 목회자와 함께하는 채플수업’을 실시했는데 참여한 학생의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덕대 학원선교위원회(총무 김석운 목사)는 최근 캠퍼스에서 종강세미나를 갖고 “올해 1학기 학원선교위원회 예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채플수업을 들은 1학년생 703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2일과 26일 두 차례 실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채플보다 선교위원 예배(지역교회 목회자와 함께하는 채플수업)가 더 재미

있다’는 항목에 학생들은 ‘매우 그렇다’(49.6%) ‘그렇다’(23.8%)고 응답했다. 선교위원 예배 때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는 ‘이야기’(76.2%)를 꼽았다. ‘노래, 찬양’(14.4%) ‘기도’(7.1%)가 뒤를 이었다.

선교위원 예배의 좋은 점(복수응답)으로는 ‘맛있는 간식’(60.6%) ‘친구들과 함께’(45.4%) ‘목사님을 가까이서 만나다’(33.6%) 등을 꼽았다. 학생들의 91.6%가 2학기에 도 선교위원 예배가 지속되길 희망했고, 45.4%는 ‘매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종교현황은 ‘무교’(59.9%) ‘개신교’(22.9%) ‘가톨릭’(6.8%) ‘불

교’(8.3%) ‘기타’(2.4%) 순으로 나왔다.

인덕대 교목실(실장 구원서 목사) 주관으로 출범한 학원선교회는 다음세대 복음화를 위해 기독교 대학과 지역교회가 손을 잡은 학원선교의 모델이다. 지역교회 목회자 25명이 한 달에 한 번씩 40명 단위의 학생들을 상대로 채플수업을 한다. 구원서 교목실장은 “학생 600~700명이 드리는 전체 채플에선 목회자와 학생의 밀접한 상담이나 교제가 불가능했다”면서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소그룹 채플에 참여하니 친밀한 학원선교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채플수업에 참여한 최기삼 서울다사랑교회 목사는 “캠퍼스가 영적으로 척박하다 해도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학생들 대부분이 학과별 채플을 원하고 있어 채플시간을 늘리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덕대 기자동차과 학생 최중길씨는 “채플수업 과제인 ‘교회 탐방하기

를 하면서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해 주일예배를 드렸는데 앞으로도 가족, 친구들과 종종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인문학’ ‘문화’ 등 다양한 콘텐츠 채플수업 인기=연세대는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채플수업을 졸업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신촌과 송도 캠퍼스에서 학생 1000명과 500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대강당에서 각각 채플수업을 듣고 있다. 조재국 연세대 교목실장은 “무조건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기보다 기독교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채플수업 내용을 인문학 강좌와 비슷하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업을 들은 학생의 절반 이상이 채플수업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면서 “인문학에 걸음을 느낀 학생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명지대는 채플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15분 정도를 콘서트와 무용 등 문화공연으로 할애한다. ‘세족식’ ‘사랑의 음악회’ 등 공동체가

를 하면서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해 주일예배를 드렸는데 앞으로도 가족, 친구들과 종종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를 하면서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해 주일예배를 드렸는데 앞으로도 가족, 친구들과 종종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 선교의 창 (35)

## 이슬람에 대한 이해



송종록 목사 | (대학선교, 수필가)

우리는 21세기에 초반에 서 있다. 오늘날의 시대 지구촌의 가장 큰 쟁점(Issue)은 무엇인가? 중동사태이다. 그곳에 정치와 군사 및 종교적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 1990년 걸프 전 이후 기독교 배경인 서방과 이슬람교 배경인 중동과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특히 시리아사태, 이라크의 정세, IS 출현 등으로 같은 이슬람권 내에서도 싸움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기독교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차원에서 큰 부담이다. 특히 이슬람의 성장과 극렬함은 이미 도를 넘었다. 어떻게 지구촌 1/5의 인구가 같은 시간에 금식하며 한 방향을 향해 매일 5번씩 절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불나방처럼 폭탄을 몸에 달고 자신들을 산화할 수 있을까? 이 라마단 기간에 그 확립성과 연합적 대오에 소름이 끼

다. 무함마드는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알라 신이 그를 예언자라고 불렀다고 주장한다.

### 이슬람의 확장 역사

신의 계시를 받은 무함마드는 10여년간 그의 고향인 메카에서 선교활동을 했다. 그러나 성공은커녕 박해를 견디지 못하여 AD622년에 메디나로 이주(hijra)하였다. 이 해가 곧 이슬람력(曆)의 시작인 원년이다. 이때부터 이슬람은 급성장하여 예언자의 사망 시까지 아라비아반도의 대부분을 석권하였다. 교조가 죽은 뒤 백년도 채 못 되어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의 중국점경과 인더스 강 유역에서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를 거쳐 서쪽으로 스페인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이 정복

있으며 제1장을 제외하고는 그 길이가 긴 것부터 짧은 것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그 중 90장은 메카시대의 계시로서 알라신의 유일성과 인도적인 의무 그리고 장차 임할 심판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다. 메디나 시대의 약 20장은 예배, 단식, 순례, 성월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민법과 형법도 아울러 수록되어 있다.

### 이슬람의 교리

이슬람 신앙의 근간(根幹)인 6신(六信)이 있다. 첫째는 참된 신은 하나님이며 이는 곧 알라(神)이다. 둘째는 천사(天使, 말라िका)이다. 천사들 중 주가 되는 천사는 무함마드 앞에 나타났다고 하는 가브리엘이다. 셋째는 경전(聖典, 쿠란)이다. 이슬람교인들은 하나

림들은 자산의 2.5%, 교역품의 2.5%, 농업생산의 5-10% 정도를 기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자카트는 사회적 약자나 빈곤층 그리고 공공복지를 위해 사용된다. 넷째 단식월(라마단)이다. 이슬람달력(히즈라력)의 번째 달을 라마단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에는 아침에 일출 때부터 오후 일몰 때까지 해가 떠있는 동안 하루종일 금식을 해야 한다. 이 시간에는 물도 마시지 않으며 비도덕적인 언행도 삼가해야 된다. 다섯째는 성지순례(하지)이다. 무슬림은 평생 한번은 사우디의 메카를 방문하여 하지를 수행하는 것이 희망이다. 보통 라마단 종료 후 2개월 후가 된다.

### 맺는 말

기원 후 7세기 전반에 시작된 이슬

(7면에서 계속)

(중략) 그러나 그는 육신을 입어 인간이 되었으며, 그리고 나서 그는 인류의 긴 여정을 그 자신 안에 완성했다. 우리를 위해 광범위한 구원을 가져다 주어, 우리로 하여금 야담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지닌 존재의 지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할 수 있게 하셨다”(이단에 대한 논박, 3.18.1).

이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레니우스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얻는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데 있었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육체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구원 역사가 그의 승리로 종결될 것을 확신한 그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얼마나 치명적인 오류인가를 담대히 지적하였다.

“독생하신 말씀, 인류와 항상 함께 계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의 피조물과 결합되고 섞여 있으며, 육신을 입은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그는 우리를 위해 고통을 받았고 우리를 위해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드러내도록 모든 육체를 일으키기 위해, 그리고 그가 만든 모든 사람들에게 정당한 심판의 규율을 적용하기 위해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명하였듯이,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포괄적인 계획을 성취하려고 오셨고, 그 안에서 만물은 완성하시는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계시다. (중략) 그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영역에서 으름이 될 것이다. 그는 수위권을 가지고 교회의 머리로 임명되어, 머지않아 만물을 자신에게로 이끌 것이다”(이단에 대한 논박, 3.16.6).

4권에서 그는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증거하였다. 말사온을 대표로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신구약 성경의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대로 육체를 입고 오신 구세주이시다. “이 동일한 말씀으로 그들의 예언적 은사를 받은 선지자들은 그가 육체를 입고 오심을 선포했다. 이 육체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섞이고 결합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 보여질 것이고 땅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대화할 것이라고 태초부터 예언했기 때문이다(이단에 대한 논박, 4.20.4).

5권은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성부와 성자의 동일성, 그리고 창조주와 성부의 동일성 등 깊은 신학적 글을 담고 있다. 이레네우스의 저술은 후대 기독교 신학의 정립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 2) 성경이 보인다 - 요한일서 2:22; 3:2,3

체계적인 신학 훈련을 받지 않은 평신도에게 이단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요구할 수 없다. 한 개인과 집단이 이단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신중 이단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로 인해 심한 혼란을 경험하였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이 지닌 가치를 상실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교회사를 돌아보면서,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것이 교회에 어떤 유익을 주었는가를 생각해보자. 이단의 출현과 함께 교회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를 통하여 성경에 기초한 신학과 신앙의 전통이 세워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단을 맞서며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할까? 성경적이며 사도적 신앙의 뿌리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각성이다.

이메일:covenantcho@yahoo.com

##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념은 피의 관계를 뛰어 넘는다 그러나 종교는 이념보다 더 강하다 신을 매개체로 한 감정이입이 되기 때문이다

친다. 이에 대한 기독교의 반응은 무엇인가? 문제의식이 있는가? 속담에 ‘알아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다. 이참에 이슬람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시도해보자. 앓은 사역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 이슬람의 발원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Muhammad, AD570년경-632)는 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유복자로 태어났다. 그는 어머니도 병사하여 일찍 고아가 되었다. 결국 그는 할아버지를 거쳐 삼촌 아브 탈리브에 의해 키워지게 된다. 무함마드는 가난했던 삼촌을 생각하여 수의성이 좋은 직업을 구했다. 그는 삼촌의 소개로 부자였던 과부 하디자의 고용인으로 들어가 그녀를 대신해 시리아 지방으로 대상무역에 떠나게 된다. 그는 이 무역의 큰 성공을 거두고 메카로 돌아왔다. 그리고 25세 때 과부이자 나이가 40이나 되는 하디자와 결혼을 하였다. 이 결혼은 무함마드에게 부와 명예를 안겨주었다. 이후 그는 생애 대부분을 홀로 목장 가운데서 지냈다. 그는 AD610년 메카의 한 동굴에서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한

지 가운데 스페인을 제외한 지역은 무슬림 다수지역으로 현존하고 있다. 그 뒤 정복에 의한 포교보다 무역을 통한 포교활동으로 이슬람은 동남아시아 즉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유럽의 발칸지역과 중국의 신강성 지역에도 진출했다. 현재 이슬람 인구는 14-17억으로 추정한다.

### 이슬람교와 경전

이슬람교(아랍어: al-islam)는 무함마드를 예언자로 하며 ‘알라를 단일 신으로 하는 종교이다. 알라는 아랍어로 ‘하나님’, ‘신’이라는 뜻이다. ‘이슬람’이란 뜻은 “복종·순종”을 의미한다. 이슬람을 믿는 신자는 남자인 경우 무슬림이라고 하고 여자인 경우에는 무슬리마라고 한다. 이슬람의 종파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하는 수니파와 이라크 중심의 시아파가 있다. 수니파는 전체 무슬림 인구의 80-90%를 차지하며 시아파는 10-20% 정도이다.

이슬람교의 경전은 쿠란(코란)이며 그가 예언자로 자처한 40세 때부터 사망 시까지 수시로 받은 계시를 수록한 책이다. 코란은 114장(sura)으로 되어

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쓰여졌다고 하는 네 개의 책을 믿고 있다. 쿠란은 알라신이 인류에게 한 마지막 말미로 이 책은 이전에 쓴 모든 책들을 능가하는 책이다. 넷째는 예언자 또는 사도(使徒, 나비)이다. 그들에게는 무함마드가 가장 위대한 예언자임을 말할 것도 없다. 다섯째 내세 또는 부활(復活, 아힐라)이다. 마지막 날에는 알라가 심판자가 되어 사람들을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도록 만든다. 천국이란 쾌락의 장소이며, 지옥은 알라신과 그 예언자를 거역한 사람들을 위한 장소이다. 여섯째 예정 또는 정명(定命, 카달)이다.

### 5대 의무사항

첫째는 맹세(샤하다)이다. 이슬람교인이 되기 위해선 Shahadah 즉 ‘알라 외엔 다른 신이 없으며 알라신의 예언자는 무함마드이다’라고 하는 신앙 진술을 신자들 앞에서 해야 한다. 둘째는 기도(살라트)이다. 그들은 매일 다섯 번 성지 메카를 향하여 절을 하러 기도하는 것이다. 이 시간은 일몰이 아니라 정해져 있으며 매일 조금씩 다르다. 셋째는 자선(자카트)이다. 무슬

람은 광복성장을 거듭해왔다. 초대 기독교회가 자리 잡은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했다. 그리고 중동권을 넘어 세계로 교세를 확장하고 있다. 비록 전쟁과 반목으로 인한 상흔이 깊지만 오일달러를 통한 전략적인 접근은 상당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이슬람이 무서운 것은 단순한 믿음만이 아니고 스스로의 법제(法制) 및 사회체제를 구비한 움마(Ummah)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이슬람은 종교인 동시에 국가인 것이다. 이슬람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다. 이 추세로 100년이 흐른다면 세계의 영적 판도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이에 비해 기독교는 어떠한가? 지극히 개별적이고 인본주의적이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스스로 절대가치와 신앙을 깨부수고 있다. 이것이 대세라면 미래가 어둡다. 우리 후손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가? 선지자 호세아가 외쳤듯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오늘날 세계인구 1/5이나 되는 무슬림들이 도처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후 7:30 (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b>덴버에덴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세환 영어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일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www.kopscschurch.org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봉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배 회: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www.jkcs.org	<b>벤델교회</b>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부흥예배(영):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목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원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주일부흥예배: 오후 7: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1:00 주일유년예배: 오후 11:00 주일유년부예배: 오후 11:00 주일유년부예배: 오후 11: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ingham, MA 01944	<b>샬롯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성경예배: 오후 8:00 목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유년예배: 오후 11:00 주일유년부예배: 오후 11:00 Tel. (704)529-0900 / 0998(팩스) 701 Scalegrove Rd., Charlotte, NC 28209
<b>새시온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b>시애틀평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opscschurch.org	<b>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Fax. (702)748-3825 3825 Melody Ln., Las Vegas, NV 89108 www.kopscschurch.org	<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kcs.org	<b>앵커리지델린문교회</b> 담임목사: 유제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b>엘파스델린문교회</b>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기도회: 오후 8:00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b>킬린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목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54)634-8705(H), (254)531-1842(C) 1000 E. Veletranz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ichburg Rd., Richmond, VA 23235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nacrc.org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청년예배: 오후 7: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	<b>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영-국)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선교지 소식

## 헝기가 끝나도 풀려나지 못하는 이집트 콕틱교인

모하메드 헤가지는 원래 이슬람 신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다. 그는 성인이 된 후 대부분의 시간을 숨어 살거나 감옥살이를 해야 했고, 지금도 감옥에 있다. 그는 자신이 기독교로 개종했음을 당당히 밝히고 개인 신분증에 표기되는 종교를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바꿔 달라고 청원을 했었다. 아버지의 종교를 따라야 하는 법률 때문에 자신의 태어날 아이가 이슬람 신자로 행정 분류가 되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것이다.

2007년 8월에는 헤가지라는 이슬람식 이름을 버리고 볼루스(바울의 이집트식 발음)라는 새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정부는 그의 이름도 종교도 변경을 불허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이슬람 신자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불법이다.

ID 변경 청원으로 인해 개종 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후 헤가지는 오랜 세월 동안 숨어살아야 했다. 그는 2013년 미나에서의 시위 사태 때 검거되어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했다는 혐의로 5년 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1년으로 감형되어 2014년 말로 형기가 끝났으나 당국은 아직도 그를 석방시키지 않고 있다.

## 무슬림서 개종한 우간다 女 기독교인, 시누이에 독살 당해

무슬림에서 개종한 우간다의 한

기독교인 여성이 무슬림 시누이에 의해 독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모닝스타뉴스(Morning Star News)가 최근 보도했다.

우간다 동부의 한 마을에 사는 나뭇배자 스와부라는 지난 2014년 8월 전 이슬람학교 교사였던 남편 무고야 무함마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 그 후 무슬림들의 끊임없는 살해 협박을 받아 왔다.

그러던 중 지난 17일 독목들이 든 음식을 먹고 11명의 자녀들을 남겨둔 채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막내는 태어난 지 불과 5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 스와부라는 독살한 사람은 다른 아닌 시누이 자파란 우와였다. 우와는 이날 오후 4시경 스와부라의 집에 찾아와서 자신이 만든 요리를 내왔다. 우와는 상을 차린 후 음식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고 스와부라가 음식을 먹자 곧장 자리를 떴다.

스와부라는 시누이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자 즉시 복통을 느끼기 시작했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코에서는 피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왔다. 때마침 도착한 남편 무함마드가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애썼지만 차를 빌리지 못했고, 결국 스와부라는 집에서 숨을 거두었다. 제대로 장례를 치를 돈도 없었던 터라 다음날 바로 매장됐다.

무함마드는 앞서 모닝스타뉴스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는 우리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무슬림들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부부가 출석하는 나볼리 뉴호프 처치의 제임스 카라자 목사도 계속해서 위협을 받아왔고, 다른 마을로 옮길 것을 강요받고 있다고 했다. 카라자 목사는 "무슬림들이 나볼리에서 단 하나의 교회도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스와부라의 죽음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흔들리고 있다. 핸드폰으로 협박 메시지를 계속 받아온 무함마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 선포 1주년을 맞은 IS(Isamic State)의 폭력성과 잔혹성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IS가 포로들을 크레인에 가둬 익사시키는 장면(동영상 캡처)

## "참수론 부족했나"...IS, 익사-신체 폭파로 살해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상상을 초월한 갖가지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 살해하는 동영상 공개했다.

IS와 연계된 소셜네트워크(SNS) 계정을 통해 23일 유포되기 시작한 동영상엔 붉은색 죄수복을 입은 남성 4명이 갇힌 철창이 크레인에 매달려 서서히 수영장에 잠

기는 장면이 담겼다. 철창엔 카메라가 설치돼 물에 잠길 때부터 수중에서 익사하는 모습이 그대로 촬영됐다. 또 승용차에 사람들을 밀어 넣은 뒤 멀리서 대전차 로켓포인 RPG를 쏘 불에 태워 죽이는 장면이 나온다. 붉은색 죄수복의 남성 7명을 나란히 무릎을 꿇리고 목에 폭발물이 든 줄을 차례로 엮은 뒤 폭발시켜 죽이는 장면도 경악을 자아낸다. 이 동영상에 나오는 선전 조직의 표식으로 볼 때 IS가 장악한 모습이 있는 이라크 북부 니네베 주에서 벌어진 살해 장면으로

시야와 민병대의 공세가 거세지면 서 이에 따른 동요를 막고 상대를 위축하려는 심리전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IS 훈련소가 57곳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시리아 내 알카에다 지부인 알누스라 전선이 23곳이었다. IS는 이라크에 30곳, 시리아에 27곳의 훈련소를 운용해왔다. '어린 이 전사'를 전문으로 훈련하는 곳도 11군데에 달했는데, 이곳에서는 군사 훈련뿐 아니라 자신들이 신봉하는 극단주의 사상을 주입하는 역할도 했다. IS는 시리아 란카에서 여성 전용 훈련소를 운용하기도 했다.

## 영국 목회자 "이슬람은 사탄적" 발언에 검찰에 기소 당해

영국 북아일랜드의 한 목회자가 이슬람은 사탄적이며, 악마의

씨앗과 같은 종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최근 보도했다. 제임스 맥코넬(James McConnell·78) 목사는 이슬람 혐오죄로 고발당한 후 사과했지만 여전히 기소 중이라고 북아일랜드의 Public Prosecution Service(PPS)가 밝혔다.

## IS 등 테러조직 훈련소 급증... 이라크-시리아서 117곳 운용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등 테러조직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운용하는 군사 훈련소가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테러 정보·분석 매체 통워저널은 21일 IS, 알누스라 전선 등이 이들 2개국에서 2012년 초부터 운용한 군사훈련소가 모두 117곳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집계한 46곳보다 2.5배로 늘어난 수치다. 국가별로는 85곳이 시리아에, 32곳이 이라크에 설치됐다.

IS 훈련소가 57곳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시리아 내 알카에다 지부인 알누스라 전선이 23곳이었다. IS는 이라크에 30곳, 시리아에 27곳의 훈련소를 운용해왔다. '어린 이 전사'를 전문으로 훈련하는 곳도 11군데에 달했는데, 이곳에서는 군사 훈련뿐 아니라 자신들이 신봉하는 극단주의 사상을 주입하는 역할도 했다. IS는 시리아 란카에서 여성 전용 훈련소를 운용하기도 했다.

통워저널에 따르면 117곳 중에서 현재는 점령지 변화 등으로 최소 16곳이 폐쇄됐고 15-22곳이 미국 주도 IS 격퇴 국제연합군의 공습으로 파괴된 상태다.

## 영국 목회자 "이슬람은 사탄적" 발언에 검찰에 기소 당해

영국 북아일랜드의 한 목회자가 이슬람은 사탄적이며, 악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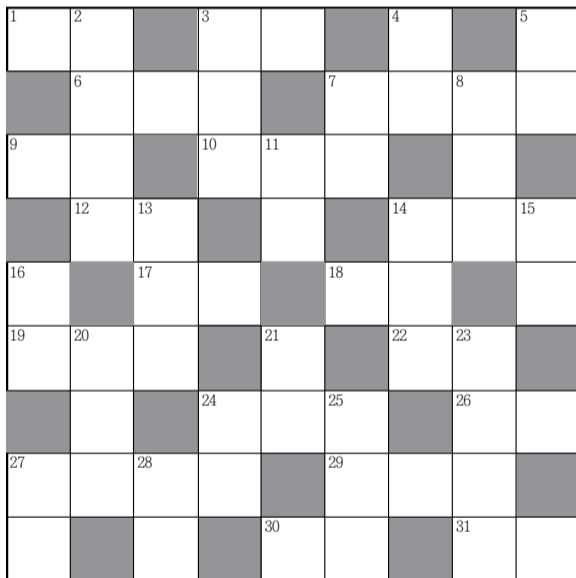
Whitwell Metropolitan 교회의 담임목사였던 맥코넬 목사는 논란이 된 발언 후 교회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PPS 대변인은 "2014년 5월에 이뤄진 설교의 인터넷 방송에서 해당 발언은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s Act 2003)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맥코넬 목사는 PPS의 결정으로 인해 자신이 재갈이 물려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나의 입을 닫아 설교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 그러나 나는 언론의 자유를 믿으며, 계속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나는 무슬림들에게 적대적이지 않으며, 그 누구를 증오해본 적도 없다. 하지만 나는 무슬림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무슬림들은 그들이 믿는 것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고, 나는 내가 믿는 것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맥코넬 목사는 지난 2014년 6월 "의도치 않게 논란을 초래한 것을 공개 사과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교회 웹사이트에 올렸었다. 그는 또 최초 발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종교를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한 것"이라며, "나는 폭력을 혐오하며, 폭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신앙을 정죄한다"고 말했다.

## 십자말 • Cross Word (88)

###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 <가로 푸는 열쇠>

- 힘이나 마음을 다 함(대상16:25).
- 목이 마르듯이 몹시 조급함(시42:1).
- 베나민지파 시므이의 아들(대상8:20).
- 신통하고 묘하여 측량할 수 없음(시139:14).
- 일을 맡아 봄(창39:11).
- 도에 어긋난 사람(시101:3).
- 그물과 같이 성기게 잔 김(사3:18).
- 라기스에 가까운 평지에 있던 유대의 성읍(수15:39).
- 헬라 알파벳의 첫 자. 하나님의 칭호(계1:8).
- 길을 같이 감(눅2:44).
- 함의 아들 미스라임의 아들(대상1:11).
- 며느리(룻2:22).
- 예루살렘의 문 이름(렘19:2).
- 의견이나 안건을 내어놓음(행25:18).
- 감사제에 바친 제물(대하29:31).
- 성부, 성자와 함께 3위 일체인 하나님 곧 성령을 말함(요14:16).
- 유다의 아들(창38:5).
- 길고 오렘(신5:33).

### <세로 푸는 열쇠>

- 성정이 바르고 참되어 명령길이 없음(출18:21).
- 갈대로 만든 배(사18:2).
- 기이하고 묘함(전4:4).
- 미루어 생각함(그의 뜻을 OO하기가 어렵다)
- 종교를 믿는 사람(행10:45).
-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가족(스2:30).
- 나무를 찍거나 패는 연장의 하나(신19:5).
- 아모리 사람의 성읍인데 단 지파가 점령하지 못했다(삿1:35).
- 걸어가는 사람(렘12:5).
- 스블론에 있던 성읍(수19:15).
- 아브라함이 잠시 이곳에 살다가 여호와의 지시를 받고 정처 없이 떠났다(창11:31).
- 솔로몬 왕 신복의 한 조상(스2:52).
- 나이갈 길을 가르쳐 알게 함(렘14:14).
- 제사장의 버금되는 사람(왕하25:18).
- 짐(행27:10).
- 랍비들의 아내로 사자가 되었다(삿4:4).
- 깊이 느끼어 마음이 움직임(마22:43).
- 제사를 드린 고기(레7:7).

### 십자말 정답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www.lapioneertour.com

P.I.O.N.E.E.R P.I.L.G.R.I.M T.O.U.R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대표전화 714-351-0124

안녕하세요!  
저희 성지순례 파이오니아 여행사에서는 금년 가을에 이스라엘과 소아시아를 아우르는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흔적과 바울사도의 행적을 한꺼번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따로 두 번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가실 비용으로 성지 4개국을 다녀오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셜 코스**  
이שראל과 소아시아를 아우르는 코스 **요르단/이שראל/터키/그리스 13일** \$3999 (9월말 마감)  
10월 12일 출발 - 10월 24일 도착

**여행상품 · 일정**

이שראל, 요르단(9박 10일) * 출발일: 2016년 2월 11일	\$2,799
이집트, 이שראל, 요르단(10박 11일) * 출발일: 2016년 3월 11일	\$2,899
요르단, 이שראל, 터키(10박 11일) * 출발일: 2016년 4월 11일	\$2,899
터키, 그리스(9박 10일) * 출발일: 2016년 4월 11일	\$2,799

※ 유류할증료, 항공세 포함  
※ 비자피, 출입국세는 별도  
※ 여행자 보험은 옵션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세요!  
**714-351-0124** 성지순례 15년의 경력  
를 최목사  
함께 하면 은혜스러운 순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PIONEER PILGRIM TOUR**  
새로운 성지순례의 지평은 연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 주소: 17510 Pioneer Blvd, #210 Artesia, CA 90701  
\* E-mail: choigh1115@gmail.com, choigh1115@hanmail.net \* 파이오니아 사무실: FAX.(562)403-3363

**DYNAMICS 다이나믹스**  
MARTIAL ADRENALINE ZONE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교회 타월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자수  
광고배너  
교회배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LA RESORTWAY  
FEDORA ST.  
LA GUEST HOUSE  
OLYMPIC BLVD.  
김스전기  
한남제인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 인/터/뷰 강해설교집 40권 출간한 이용규 목사

## “군더더기가 걷어내고 오직 진리만 남도록”

서점 가에는 지속적으로 목회자들의 설교집이 출간되어 나오고 있다. 가히 설교집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지난 6월 28일 동부장로교회에서 이용규 목사 '강해설교집 40권' 출간 감사예배가 열렸다. 40권의 설교집은 단순한 설교집의 개념이 아닌 저자 이용규 목사의 인생을 담아낸 자전적 이야기와 주석과 같은 느낌을 주었다. LA 교계 올드 타이머로 알려진 저자 이용규 목사는 한국 명륜교회에서 안정적으로 목회사역을 감당하다 파송 절차 없이 도미한 목회자다. 마치 아브라함 같은 행보를 보인 목회자로 여겨진다.



“아무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위를 받아도 설교를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회에 첫발을 내딛은 자들은 물론 현재 왕성하게 목회현장에 있는 분들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설교에 대

“1973년 9월 마지막 주일 첫 번째 예배를 시작했으니 43년간 목회를 한 셈이지요. 워베드롭 아파트에 아내와 아이 3명 등 다섯 명이 살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리를 바로 전해야겠다는 사명감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신학은 그가 살던 이복에서의 삶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신학교에 입학 당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고려파 이기선 목사의 가르침을 충실히 받은 후 졸업한다. 한국전쟁 당시 1.4후퇴 때 피난을 내려와 고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명륜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게 된다. 당시 그의 행인 신촌 장광교회 담임 이병규 목사와 함께 개혁신학교에서 후학양성에 힘을 쓰게 된다. 그러다 미국행을 권유받게 됐다.

“1973년 9월 마지막 주일 첫 번째 예배를 시작했으니 43년간 목회를 한 셈이지요. 워베드롭 아파트에 아내와 아이 3명 등 다섯 명이 살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리를 바로 전해야겠다는 사명감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신학은 그가 살던 이복에서의 삶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신학교에 입학 당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고려파 이기선 목사의 가르침을 충실히 받은 후 졸업한다. 한국전쟁 당시 1.4후퇴 때 피난을 내려와 고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명륜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게 된다. 당시 그의 행인 신촌 장광교회 담임 이병규 목사와 함께 개혁신학교에서 후학양성에 힘을 쓰게 된다. 그러다 미국행을 권유받게 됐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선포했던 내용을 설교집으로 엮어냈다. 어느덧 40번째 설교집이 탄생하게 됐다. 이 목사가 설교집을 출간하게 된 것은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신학이 담긴 설교집을 출간하고자 한 것과, 설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것이라 말했다.

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석을 참고한다고 해도 좋은 설교로 이어지기까지는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설교집을 내게 됐습니다.” 그의 설교집의 특징은 설교마다 성경본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을 제목으로 정하고, 본문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대, 소지를 세워서 말씀의 내용을 쉽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새김질하기 좋게 했다. 또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기

### 저자 인생을 담아낸 자전적 이야기, 주석 같은 느낌 줘 설교집내 영어번역도 있어... 중국어버전 번역작업 착수

“개혁신학교에서 형 이병규 목사는 성경을 가르쳤고, 저는 신학을 가르쳤어요. 어느 날 형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곳에서 진리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내다볼 때 많은 목회자후보생

그 후부터 지금까지 선포했던 내용을 설교집으로 엮어냈다. 어느덧 40번째 설교집이 탄생하게 됐다. 이 목사가 설교집을 출간하게 된 것은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신학이 담긴 설교집을 출간하고자 한 것과, 설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것이라 말했다.

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석을 참고한다고 해도 좋은 설교로 이어지기까지는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설교집을 내게 됐습니다.” 그의 설교집의 특징은 설교마다 성경본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을 제목으로 정하고, 본문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대, 소지를 세워서 말씀의 내용을 쉽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새김질하기 좋게 했다. 또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기

번째 설교집까지는 이용규 목사가 작성된 설교집을 재편집하는 과정을 통해 출간했다. 그러나 11번째 설교집부터는 타이핑실력과 편집 재능을 가진 전도사에게 자신의 설교CD를 타이핑해 초안 작성을 하고, 이 목사의 검토와 국문학교 수 출신 교인의 감수 등의 과정을 거쳐 설교집을 펴내게 됐다고 설교집 편찬과정을 설명했다. “제 설교집은 목회자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아무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갖게 되는 고민들이 있을 거니까요. 그것을 제설교가 조금이나마 해소해주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선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제 설교집을 여러 교단의 교회들에서 참고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아마도 이러한 모습들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용규 목사의 목표는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목사가 말하는 큰 교회의 개념은 교회 성장학에서 이야기하는 숫자를 불

이며 성경말씀 외에 어떤 군더더기도 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또한 강해설교집 40권 출간감사예배를 드리고 난후 달라진 점은 교인들이 설교집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라고 언급했다. 즉 설교집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는 것.

“설교집을 한 권 한 권 내면서 교인들의 반응은 그저 책 한 권 나온 것 정도로 보는 거 같았어요. 하지만 출간감사예배에서 초청된 외부인사들의 이야기를 접한 뒤 교인들의 눈빛이 달라져있음을 느끼게 되요. 설교를 맡았던 신현국 복음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축사를 맡았던 캘리포니아 아트 유니버시티 총장인 정세광 목사님의 말씀을 접한 뒤 책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이 목사는 비록 설교집이 재미있게 쓰여진 것이 아닌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지라도 이 책을 통해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데 일조를 하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설교집을 계속 출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설교집을 접한 분 중 중국어에 능통한 목회자가 이 책을 중국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권면에 따라 중국어버전 번역작업에 들어갔다.

이용규 목사는 “설교집을 통해 군더더기가 걷혀지고 오직 진리만이 남을 수 있는 교회들이 많아지길 바란다며 그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규 목사의 설교집은 현재 기독교서적센터, 세리토스 복음사, 조이 기독교번역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4면에서 계속》 나깃수의 권속에게 문안하라고 했는데, 이 나깃수는 글라디오 황제의 비서가 된 사람이요, 주인 나깃수가 죽자 그를 섬기던 사람들은 네로 황제의 가계로 들어왔습니다. 이 외에도 당시 로마교회에는 탁월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로마교회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받고 돌아온 사바들에게 의해 세워진 자생적 교회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이미 알았고 그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여겼기에 그가 최후로 로마로 올 때 열렬히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일찍이 베네 편에 받은 편지 로마서를 통해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 끌려와 투옥된 지금, 어느 누구도 옥에 있는 바울

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중죄인이라는 죄명과 함께 사형 당할 처지였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감시가 삼엄했습니다. 구금생활을 했던 지난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같은 당으로 몰려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은 두려움에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다 나를 버렸다'고 씩씩하게 고백했습니다(딤후4:16). 결정적인 순간에 철저히 홀로된 바울, 전에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섰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떠나 버렸습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늙은 몸으로 홀로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동정하고 아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치금을 넣어주기는커녕, 방한복 한 벌 입지 못하고 한기에 떨떨 떨고 있는 바울, 어쩌면 이것이 목회자가 걸어가야 길인지 모릅니다.

이런 길을 주님도 공생애를 통해 경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가 도망을 쳤습니다. 두려워 멀찍이 따라오던 수제자 베드로조차 종이 그를 알아보고 너도 예수의 함께 있었다고 하자 맹세하면서 까지 주님을 부인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이 이 땅에서 가까이하던 성도들이 떠나고 배반 당하는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보너스'를 받은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목회자가 성공이라고 가볍게 치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도의 대접에 지나친 박수를 치지 말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성도가 떠난다고 실패의식을 갖는다던지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목회자가 현장에서 만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일 수 있

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디모데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는 위대한 스승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받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깊은 울음을 울어야 했을까요. 속히 오라는 편지를 받고 디모데는 당장 준비하여 드로아로 갔습니다. 고독한 스승 바울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는 80 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자동차로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겠지만 2천 년 전에는 며칠을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디모데는 드로아 가보의 집에 가서 스승이 입었던 띠에 젖은 냇물 길을 가지고 로마까지 오는 데는 수많은 날들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배가 정박하는 나폴리 근교인 보디올(행28:3:현Pozzuoli)에 하선하여 아피아(Appia)길을 통해 로마까지

는 2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려면 일주일 이상을 걸어야 합니다. 그 먼 길을 스승의 띠내 절은 걸을 때 가슴에 품고 디모데는 로마를 향해 걸고 또 걸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소천하신 어머니의 남기신 옷을 가슴에 품어본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 저고리를 품어 안고 어머니의 땀샘을 오랫동안 말아보았습니다. 아마도 디모데도 비슷한 행동을 취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도 여행으로 띠내 맨 믿음의 아버지의 옷입니다. 아시아에 가면 성 프랜시스가 입었던 누더기 옷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옷도 그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옷에 맨 스승의 체취는 디모데로 하여금 전도사의 길을 다시 한 번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날들을 달려 디모데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스승 바울은 이미 순교 당하고 꽤 많

은 날들이 지난 때였을 것입니다. 네로는 당시 상황에서 바울로 하여금 변명할 기회를 줄 수 없었기에 며칠 내로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네로는 만 서른 안 되었을 때니 무슨 철이 있었겠습니까? 디모데는 스승의 남긴 옷을 품에 안고 뜨거운 눈물을 뿌렸을 것입니다. 스승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회한, 스승이 주님의 소명을 이루고 떠나기 얼마 전까지도 겨울이 오는 길목인 우기 철에 감옥에서 추위에 떨게 방치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험한 길, 죽음의 자리로 오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그 곳이야말로 순교의 제물이 되는 자리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야말로 더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바울은 인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쫓고 계신지요?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에 에세이를 연재하며 교회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영혼의 저널리스트**로 주목 받고 있는 소강석목사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신앙, 역사를 향한 뜨거운 외침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 꽃씨 심는 남자

소강석 에세이집

“그는 거친 황야를 달리는 들소처럼 가슴을 뜨겁게 하는 야성과 소망이 있다.”  
- 이어령 교수 -

“목사, 시인, 애국자 등 그가 지닌 세 얼굴이 때로는 교차하고 때로는 번갈아 드러나면서 글 읽는 맛과 호소력을 더해준다.”  
- 이선민 조선일보 기자 -

336면 / 14,000원

전국 기독교 및 일반 서점 절찬리 판매!

소강석 기념식 낭송시 모음집

# 평화의 꽃씨

영혼의 꽃씨를 열어주소서

한국교회 최초 기념 시집! 목회자들에게 기념예배 참고와 교회 대표기도를 하는 중직자들에게는 기도문 작성에 큰 도움이 될 영성과 감성의 시적 언어! 예배 인도자들이 꼭 한 번 읽어주어야 할 시집!

251면 / 10,000원

소강석 지음

• 한글인터넷주소 : 쿨란.쿨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coolran.co.kr •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6 • TEL : 747-1004(대)